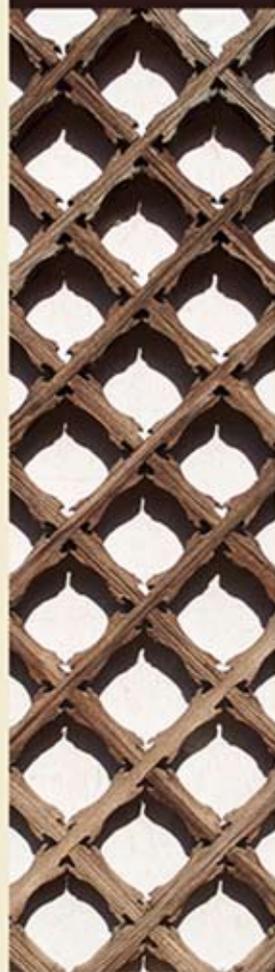


韓國書院學報

제 7 호

韓國書院學會
2018.12



차례

<일반논문>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 구축과 공유 김정운 / 5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 이우진 / 33

-귀태허 공부론과 관련하여-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 연구 블라디미르 글룸브, 마틴 겔만 / 59

디지털 인문학 관점에서의 서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초보적 연구 전배배 / 83

<부록>

경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격 99

후보 119

Contents

Publishing and Collecting Books of Dodong Seowon
..... Kim Jeongun / 5

The study on Oshio Chusai's teaching in Sesimdong Academy.
..... Lee Woojin / 33

North Korean Research on Confucian Academies in the
1950s and 1960s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 59

The preliminary study about under the vision
of Digital Humanities data base development Zhan Beibei / 83

Supplement 99

Bulletin 119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김정은*

-
- I. 머리말
 - II. 『景賢錄』 간행과 지식 체계의 구축
 - 1. 『경현록』의 간행
 - 2. 重刊의 의미
 - III. 藏書의 활용과 지식의 공유
 - 1. 소장 도서
 - 2. 藏書의 활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도동서원은 16세기 현풍에 건립된 쌍계서원이 전란으로 훼손된 후, 17세기 초 한강 정구(鄭逵, 1543~1620)가 주도하여 중건한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도동서원은 김광필(金宏弼, 1454~1504)과 정구를 제향하며, 그들이 구축한 학문적 정체성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조선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서적을 출판하고 모아 보존하는 것은 서원의 주된 역할이었고, 이것은 교육이라는 서원의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서원은 물적 기반이 허락하는 대로 서적을 간행하고, 수집 보관하였다. 서원이 책을 간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을 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담고 있는 지식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서원이 소장한 도서는 그들이 지향하는 지식을 담고 있으며, 책의 흐름은 지식이 확산되어 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정구는 서원을 중건하는 작업과 함께 스승 김광필의 글을 모아 『경현록』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경현록』의 간행은 도동서원이 지향하는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이후 도동서원은 정구가 천명한 학문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함께 도동서원은 여타 기관에서 간행한 도서를 모아 보관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지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windy-09@hanmail.net

주제어 : 道東書院, 金宏弼, 鄭述, 『景賢錄重刊時下記』, 『書冊目錄』

I. 머리말

조선은 유학 이념을 토대로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유학에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주자는 유학의 기본 과제로 삼은 수기(修己)의 핵심적인 요건을 학문의 연마로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조선은 국가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지식인들이 서원을 설립하여 지역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조선시대에는 지식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계층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서원은 조선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서적을 출판하고 서적을 모아 보존하는 것은 서원의 주된 활동이었고, 이것은 교육이라는 서원의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서원은 물적 기반이 허락하는 대로 서적을 수집 보관하였으며, 직접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서원이 책을 간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을 정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며 자신들이 담고 있는 지식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 서원이 소장한 도서 역시 그들이 지향하는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도서를 공유하는 것은 지식이 확산되는 방향을 보여준다.

도동서원은 영남의 주요한 서원으로 16세기에 현풍에 건립된 쌍계서원이 전란으로 훼손된 후, 17세기 초 한강 정구(鄭述, 1543~1620)가 주도하여 중건하였다. 정구는 서원을 중건하는 한편 스승의 글을 모아 『경현록』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도동서원이 지향하는 지식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와 함께 장서(藏書) 역시 학문의 성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도동서원은 도서를 모아 보관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지적 역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에서 도동서원이 서적 간행과 장서를 통해서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것이 확대되어가는 흐름을 가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것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보편적인 지식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서원의 중요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景賢錄』 간행과 지식 체계의 구축

1. 『景賢錄』의 간행

조선시대에 서원이 설립된 이후 서원을 출입하는 이들은 서원에서 개최하는 강학을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갔다. 선학의 학문을 습득하는 것은 지식인이 학문에 접근하는 시작이며, 각자 자신에게 맞추어 재정리하는 것은 지식인이 지향할 학문에 대한 태도이다. 서원은 학문하는 공간으로 책을 소장하고 구성원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기존의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나아가 자신의 관념으로 선학의 지식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들이 간행한 책에 담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선학의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매진하였고, 자신의 관념으로 정리해내었다.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 선학의 지식을 동학들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은 자신들의 지식을 공적인 지식 세계에서 일정한 영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서원에서 이루어졌다.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가 남긴 글은 매우 적었다. 『景賢錄』은 다른 사람들이 김굉필에 관해 쓴 글을 모은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으로 김굉필의 학문적 위상에 맞게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경현록』은 김굉필의 지식을 담고 있으면서, 후학들이 그의 학문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경현록』을 간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이정(李楨, 1512~1571)이다. 1565년 이정이 순천부사로 지내던 때에 이곳에 유배된 김굉필과 조위(曹偉, 1454~1503)의 사적을 수집하고, 스승 이황(李滉, 1501~1570)의 자문을 구하여 『경현록』을 간행하였다. 당시 이정이 간행한 것은 1719년에 간행된 『경현록』 상책의 상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후 조식(曹植, 1501~1572)이 추가한 사적과 이준경(李浚慶, 1499~1572)이 추가한 사실을 보탠 것이 『경현록』 상책의 하권이다.¹⁾ 이정이 간행한 『경현록』은 처음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정이 순천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간행하였기 때문에 순천지역의 지식인들과 교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학의 학문을 공유하려는 지역 지식인들의 역할은 정구(鄭逋)의 『경현록』 간행 작업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정구는 1604년경에 『경현록』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도동서원을 증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당시 정구가 『경현록』을 편찬한 것에 대해서 후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가 草本을 살펴보니, 여러 조항 가운데 그 내용을 써넣지 않고 다만 그 몇 장 몇 줄이라고만 쪽지를 붙여 놓은 곳이 많았다. 아마 先生이 초본을 편집할 때 本錄에 추가해 넣을 것과 諸賢의 문집 중에 기재된 것을 아직 써서 매꾸지 못하고, 다만 그 장수만 표시해두었다가 定本이 만들어 지면 써넣으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편집하면서 그 조항의 이름을 모두 그대로 두어, 선생이 收錄한 뜻을 나타내려 한다.²⁾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구는 『경현록』을 간행하기 위해서 스승의 글을 찾아 편집하였다. 다만 이 기록에는 정구가 구상하는 『경현록』의 구체적 내용을 볼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정구는 『경현록』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시

1) 김훈식, 「順天刊本 景賢錄의 편찬과 내용」 『역사와 경계』 86, 2013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2, 2013.

2) 『景賢續錄』 「景賢續錄考疑」

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구는 이정이 간행한 『경현록』을 두고 왜 다시 하려고 하였을까. 다음은 정구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퇴계 이 선생이 昇平刊本에다 약간 더 보태기는 하였으나 없어진 자료의 만분의 일도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귀로 전해들은 사적이며 師友와 문인들이 약간씩 알고 있는 것들을 수습해 놓고, 지금 또 이것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전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本錄의 뒷부분에 院記와 行狀 등을 추가해 넣었고, 특히 庚子年(1480, 성종11)에 올린 상소문의 경우는 감히 반드시 선생의 저술이라고 볼 수 없는데 도 이 선생의 手錄속에 함부로 끼어 들어가 난잡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지금 이 글들을 한데 모아 續錄으로 만들었다. 비록 주제넘은 행위임을 면할 수 없으나 어쩌면 선생의 미미한 사적을 약간이나마 더 보충하였다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을 편집하는 체제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³⁾

정구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간행된 『경현록』의 편찬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구는 김굉필의 글과 관련된 사실들을 모으되 이황이 언급한 것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퇴계가 언급한 李積이 쓴 「행장」은 남겼고, 奇大升이 쓴 「행장」은 ‘속록’으로 옮겼다. 「경자소」는 김굉필의 저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김굉필의 글이 맞더라도 퇴계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록’으로 옮겼다. 이렇게 정구는 『경현록』을 이황이 인정한 김굉필의 글로 구성하여 김굉필의 학문계통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선학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학문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서원에서 이루어졌다. 정구는 도동서원을 중건하고, 『경현록』을 간행하여 도동서원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남 지성의 한 축을 구성하였고,

3) 『景賢續錄』 「識文」

이후 지역사회에서 중심에 있게 되었다.

그 후 숙종 때 김굉필의 후손 김하석(金夏錫, 1638~1687)이 다시 『경현록』을 간행하였다. 김하석은 1678년 정구의 초고를 접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현록』을 다시 편찬하였다. 그는 정구가 구성한 ‘본록’과 ‘속록’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 각각 『景賢錄』과 『景賢續錄』으로 편찬하고, 이후에 나온 김굉필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景賢續錄補遺』로 만들었다. 다만 정구 이전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속록’에 항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은 『경현속록보유』에 실었다. 그리하여 6권 3책의 『경현록』을 편찬하였다. 이 책의 간행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짐작된다. 이후 『경현록』이 몇 차례 더 중간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다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해년(己亥年)에 중간되었다는 것이다. 『경현록』이 여러 차례 중간된 것은 도동서원에 보존된 목판으로도 알 수 있다.

대개 서원이 간행한 서책은 그들이 보유한 책판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서유구(徐有榘)의 『누판고(鑊板考)』(1778년)는 18세기 후반에 각 지역의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의 경향을 알 수 있다.⁴⁾ 『누판고』에 따르면 예안의 도산서원에서는 17종의 책을 간행하였고, 안동의 병산서원은 3종, 경주의 옥산서원은 7종을 간행하였고, 돈암서원은 3종, 필암서원은 1종이 확인된다. 서유구가 각 지역의 서원에서 간행된 모든 책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것으로 서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서책을 간행하는 것이고, 이는 그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동서원에서는 『경현록』의 신판(新板)과 구판(舊板)을 비롯해서 『경현속록』과 『경현속록보유』의 신판과 구판,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과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파록』 그리고 『점필재선생문인록』 등 모두 8종의 책을 간행한 것이 확인된다.

4) 『누판고』는 1778년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하게 하여 정조 20년(1796)에 완성되었다.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308쪽).

도동서원 소장 책판 목록⁵⁾

번호	서명	완본수	현존수	결락수	비고
1	景賢錄(舊版)	26	16	10	기탁
2	景賢錄(新版)	23	2	21	〃
3	景賢續錄	31	9	22	〃
4	景賢續錄補遺(舊版)	28	10	18	〃
5	景賢續錄補遺(新版)	26	12	14	〃
6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11	10	1	〃
7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16	7	9	〃
8	佔畢齋先生門人錄	10	5	5	〃
총 계		171	71	100	

『경현록』과 『경현속록』 그리고 『경현속록보유』 판목은 신구판이 있는데, 구판으로 분류한 것은 신판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 구판으로 간행된 서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각 및 간행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1719년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경현록』(6권 3책)은 1719년 도동서원에서 간행한 것인데 김굉필의 8대손인 김하석이 편집한 것이다. 처음 간행할 당시에는 3책 모두 『경현록』이라고 표제를 하였지만, 내용은 책에 따라 상책은 『경현록』, 중책은 『경현속록』, 하책은 『경현속록보유』로 되어 있다.⁶⁾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

5)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6, 391~408쪽 참조. 도동서원 책판은 제기, 내사본과 더불어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보관 중이다.

6) 『경현록』은 6권 3책(상·중·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5년 李楨(1512~1571)이 순천부사 시절 이곳에 유배된 한훤당 김굉필과 梅溪 曹偉의 事蹟을 수집하여 처음 간행한 『경현록』은 퇴계의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이정의 작성한 것이 1719년 『경현록』 상책의 상권이며, 추후 조식이 추가한 사적과 이준경이 추가한 사실을 추가하여 『경현록』 상책의 하권을 이룬다. 이후에 정구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모아 여기에 자료를 더하여 『경현속록』 상·하권을 만들었다. 그 뒤 김하석이 『경현속록보유』 상·하권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1719년 도동서원에서 『경현록』을重刊하면서 『경현속록』과 『경현속록보유』를 포함하여 3책으로 엮고 각기 중·하책으로 하였다(黃義淵,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2000, 427~429쪽).

사마방목』의 판목은 1480년(성화 16) 김굉필이 생원시에 합격한 후에 함께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판각한 것으로 1737년에 간행되었고,⁷⁾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과록』과 『점필재선생문인록』은 1875년에 발간하였다.

이렇게 보면 『경현록』은 김하석이 간행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판각되었는데, 다만 내용에서는 정구가 편찬한 것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정구가 구축한 김굉필의 학문체계는 이후 후학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원은 규모에 따라서 출판할 수 있는 여건에서 차이가 컸다. 서원에서 출판한 책은 서원의 제향 인물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문인들의 문집이 많았으며, 출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는 그들의 행적을 엮어 전기류를 만들기도 하였다.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후학들은 다시 선학의 공부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학문적 정체성이 만들어져 갔다.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원에서는 간행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초기에 성립된 서원에서는 서적을 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서적을 출판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는데, 서원 출판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집은 후손이나 제자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인출(印出)하기도 하였다. 간혹 지역에 뜻있는 이들의 기부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계(契)를 조직해서 자금을 마련해 와서 간행하기도 하였다.⁹⁾

도동서원에 보관된 목판을 보면, 도동서원은 설립된 이후부터 19세기 후

7) 『金繼甲後書』, 『成化十六年庚子初三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평양 淸涼書院에서 1566년 『近思錄集解』, 『漢書傳抄』와 1568년에 『古史通略』이 간행되었고, 성주 川谷書院이 1574~1575년에 『薛文淸公讀書錄要語』, 『朱子書節要』를 간행하고, 서천 鳴谷書院에서 1581년에 『표제구해공자가어』, 『신간소왕사기』가 간행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6, 592~593쪽). 이처럼 초창기에 설립된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흔치 않았으며, 주로 감영이나 지방 관아에서 출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9)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84~86쪽.

반까지 책을 간행하였고, 김굉필의 문집과 방목 등 그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김종직의 문인록도 이곳에서 간행되었는데, 스승의 책을 간행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이들의 범주를 문인록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동서원에서 『경현록』을 간행하는 것은 도동서원의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2. 重刊의 의미

『경현록』 간행은 선학의 글을 모아 엮어둔다는 것을 넘어 도동서원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경현록』에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학문의 계통을 세우고, 나아가 이것을 조선 사회에서 지식체계의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경현록』을 간행하는 것은 도동서원의 학문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면서 지역 내에서는 서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동서원의 운영은 현풍의 사족들이 중심이 되었고, 특히 서흥김씨와 현풍곽씨가 주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⁰⁾ 도동서원의 설립과 운영 주체에 관한 사정은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일찍이 隆慶 戊辰年(1568년, 선조1) 간에 현풍의 선비들이 선생을 위하여 읍내에서 동쪽으로 2리쯤 되는 곳에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세웠다. <중략> 쌍계서원이라 하고 사실을 갖추어 위에 아뢰니, 額號를 내리고 書藉도 내렸는데, 壬辰年 병화에 불타 버렸다. 乙巳年(1605년, 선조38)에 중수하였는데, 옛터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장터가 있어서 시끄러운 까닭에 공부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또 선생이 평소에 발걸음을 하던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니 마침내 이곳으로 옮겨지었다.¹¹⁾

10)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2000.

11) 『景賢續錄』 下卷 「甫老洞書院」

도동서원은 처음 쌍계서원으로 설립되었고, 1605년에 다시 세우면서 위치를 옮겼고 이름을 바꾸었다. 『경현록』을 보면 처음에 지역의 사족들이 뜻을 모아 서원을 건립하였고, 전란 이후 정구가 주도하여 지역의 사족들과 함께 중건하였다. 이렇게 서원의 건립과 중건은 지역 사족들이 주도하였고, 그 가운데 서흥김씨와 현풍곽씨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서원이 건립된 이후에는 현풍은 물론 대구와 성주를 포함하는 영남 중부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하였다. 도동서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19세기 말의 상황은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도동서원에 도착하였다. 김씨 문중의 사람 7~8명이 와서 모여 서원에 奉審하였다. 정한강을 배향했으며, 서원의 편액은 退翁의 글씨였다. <중략> 선생의 묘에 참배하였다. 오른쪽 언덕 아래에 淨水庵이 있는데 이곳은 선생께서 廬幕을 지었던 곳이다. 김씨 문중 사람들이 『경현록』을 선물로 주었다.¹²⁾

『근사속록』의 저자인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도동서원에 방문하였을 때 서원에서 그를 맞이한 이들은 서흥김씨 문중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함께 서원을 둘러보고 스승의 묘를 참배한 후에 『경현록』을 선물로 주었다. 적어도 당시 서흥김씨는 도동서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다. 그들은 『경현록』을 간행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것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도동서원에서 간행된 『경현록』은 그들의 지식 체계를 담은 것으로 지역과 시대를 넘어 기능하였던 것이다.

『경현록』을 간행하는 일은 도동서원의 인력과 물력을 잔뜩 동원해야 할 일이었다. 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간행을 주관한 이들은 그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간행 과정에 사용된 비용을 매일 매일 기록하였다. 이것을 뒤에 하나로 묶어서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로 보관해두었다. 같은 시기 서책 간행에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고문서나 일기의 형태로 남아

12) 宋秉璿, 『淵齋集』 권22, 「自密陽還鄉記」

있다.¹³⁾

『경현록』의 경우 성책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있는데, 표제는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이다. 기해년 2월 13일 『경현록』을 중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무자 회의를 하고서 주요한 업무를 나누었다. 총 책임자 한 사람과 책의 교정을 담당할 유사 두 사람, 이 밖에 실무를 담당할 유사 세 사람과 재정을 확보하고 처리할 사람 하나 이렇게 모두 일곱 사람이 모여서 실무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술을 마시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들 어간 술값은 모두 2錢 5분이 소요된 것까지 기록하였다. 이날 이후 4월 17일 까지 매일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소요된 비용을 기재하였다. 『하기』를 근거로 보면 기해년에 『경현록』 중간 작업은 2월 중순에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두 달이 소요되었다.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책 간행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다. 책임자인 돈사(敦事)와 향유(鄕儒)는 매번 대략 10여명이 모였는데 매일 참여하는 이들의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2월 23일에 10여명의 유사들은 처음으로 기술 실무자[筆工人]와 함께 회의하였다. 매일 소요되는 경비는 식사와 술값이었다. 2월 28일은 16명의 敦事와 2명의 道儒, 그리고 9명의 鄕儒가 함께 모였는데, 작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모여 회의가 있었다. 이날은 회의 규모에 걸맞게 식사와 술 비용이 평소와 비교해서 큰 지출이 있었다. 이날 개[狗]를 잡아 회식을 하였던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의를 하였다. 이렇게 2월에는 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하였고, 사용된 비용은 매일 기록하고 월말에 그달에 사용한 비용을 정리해서 기재하였는데 모두 8兩 6錢 3분이 소요되었다.

간행 작업은 3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판각 작업이 시작되었다. 3월 4일에는 각수(刻手) 1명과 묵공(墨工) 1인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였고, 떡 값으로 6분이 들어갔다. 다음 3월 5일에 서사인(書寫人) 최서방이 참여하였는데, 이날부터 3월 17일까지 최서방은 매일 참여하였다. 반면 각수와 묵공은

13) 한국국학진흥원 편, 『간역시일기』, 2015.

이후에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3월 4일에는 각수와 떡공을 불러서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중간 작업은 2월 13일 처음 실무 회의를 한 후에 3월 17일까지는 실무를 담당할 인원을 구성하고, 서사인과 각수와 떡공을 확보하고 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하는 일을 마무리 하였다.

판각은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판각을 시작하면서 등장한 이들이 바로 승려들이었다. 대체로 서원에서 책을 간행하는 데에 판각하는 기술자는 승려들이었다. 3월 12일에 점심에는 5床과 저녁에는 7床이 승려들에게 지급되었다. 구체적인 인원은 기록하지 않았고 床을 기준으로 식사비를 책정하였는데 5床에 3錢, 7床에 4錢 2분이 소요된 것을 볼 때, 판각하는 승려에게 1인 1상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 20명에서 3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3월 13일에는 처음으로 목수(木手)가 작업에 참여하였다. 목수가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출 항목에 담배[南草]가 등장하였다. 이날 목수에게는 7습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담배값으로 7분을 지급하였다. 전날 승려들을 모아서 나무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목수를 불렀던 것인데 목수는 전문 기술인이었기 때문에 일당에 더하여 담배를 지급하였다. 담배는 17세기 초에 소개된 이후에 고가였던 것을 생각하면 목수는 고급 기술자로 취급하였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되자 3월 15일에는 판각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이날은 작업자들에게 들어간 비용 이외에 告由에 술과 어물에 6錢 5분이 더 들어갔다. 이날부터 목수를 중심으로 판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목수에게는 매일 일당을 주었고, 간혹 담배값을 더 주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목재를 마름질하는 작업을 해서 우선 마려운 목재를 가지고 3월 18일에는 판각 작업이 시작되었다.

첫날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모두 11명이었다. 각수는 목수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각수가 처음 작업하던 날 각수에게는 모두 15床의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도각수(都刻手)에게 별도의 술값을 책정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도각수에게 1床을 지급하고, 그 밖에 각수들에게 10床을 지급하였다. 이날 각수들에게는 담배와 생선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들 각수들은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도각수와 수판각수(修板刻手)로 구성되었다. 각수들은 목수가 마련한 재목에 판각하였고, 목수는 이들이 판각할 재목을 계속해서 마련하였다. 목수와 각수들은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고, 며칠에 한 번씩은 담배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판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3월 24일 서원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서원의 임원들이 작업의 상태를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저녁에 원장은 원임들을 모두 모았다. 원장은 官家에도 사람을 초청하였고, 멀리 성주(星州)에까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판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사가 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하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말 먹이[馬料]도 제공하였다. 이렇게 『경현록』 중간은 도동서원의 임원들이 주도하면서도 관아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루어졌다. 특히 성주 사족들의 방문은 도동서원의 학문적 정체성이 정구에 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월 18일에 시작한 판각 작업은 4월로 접어들자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4월 2일부터는 교정에 인원이 투입되었다. 교정에 투입된 각수는 그 기술이 정교한 것을 감안해서 도각수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였다. 당시 도각수에게 1床 4분이 지급되었는데 교정 각수 역시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당시 일반 각수들에게 13床에 5錢 5분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도각수와 교정각수는 전문 기술자로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목수가 마련한 재목에 각수들이 새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목판이 만들어지면서 목판의 검토와 교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제작된 『경현록』은 여러 기관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면 서원에서 책을 간행하는 작업은 많은 물력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물력을 동원해서 간행 작업을 하였다. 도동서원의 경우 『경현록』 간행을

통해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서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위상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거두었다.

Ⅲ. 藏書의 활용과 지식의 공유

1. 소장 도서

서원은 다양한 목적이 교차하는 공간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이다.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서원이 지향했던 교육은 전인교육이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이었다. 그렇다면 서원은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했고, 여기서 만들어진 지식 체계는 대외 교류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원은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갖추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 활용하였고, 축적된 지식 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와 공유하였다.

도동서원 도서목록을 보기에 앞서 서원 원규에서 서원에 소장된 도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다음은 원규의 한 대목이다.

院規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勤講 冬春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次焉 而求之於日用 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用力之方 庶幾不越乎 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大發明之 寒暄堂一先幸苦 皆是此字 願與諸君 共龜勉 而不敢已也.

一. 嚴禁防

莊列老釋之書 碁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도동서원의 원규에서 「근강습」 조항을 보면 원장은 서원에서 강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고, 시절에 따라 읽을 책을 제시하였다. 겨울과 봄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그리고 이락(伊洛, 정호와 정이)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와 자서(子書)와 집(集)을 읽으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서원에 출입하는 이들이 공부할 방향의 전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정을 생각할 때 사대부가 과거(科擧)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너무 과거 준비에만 치우치지는 말도록 하면서 과거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한 위기지학(爲己之學) 공부라고 하였다.

다시 도동서원의 원규를 보면 서원의 대표이면서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서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서원의 학문 외적 문제를 늘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원은 근본적으로 학문을 매개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었다. 이에 걸맞게 원규에는 원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명망있는 이들을 초빙하여 강습을 이어가도록 하였고, 원생들은 시절에 맞게 책을 읽고 논의하였다. 도동서원을 보면 서원은 바로 지식인들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를 발판으로 관직에 나가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다시 물러나서는 자신을 바로 잡는 공부를 해가는 공간으로 가장 '조선다운' 지식인을 배출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도동서원에는 원규에서 규정하는 권장 도서가 있는 반면에 소위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서원에 들여서는 안되는 책도 있었다. 그러면 서원에 들이지 말아야 할 이른바 '불온한 서적'은 어떤 책일까. 바로 노장(老莊)이나 불교 서적이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들 서적과 함께 서원에는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오락기와 잡술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또 제사용 이외에는 술을 빚지 말라는 규정이 이어서 나온다.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이라고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오락기를 전혀 손대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것은 사대부의 일상 공간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불교 서적과 노장의 책들 역시 그들의 일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집작된다. 그러나 비록 생활 공간에서 불교와 노장의 책들을 읽기도 하고, 바둑과 장기를 두더라도 사대부들에게 서원이라는 곳은 분명 성리서를 읽고 논의하는 가장 '조선다운' 지식의 공간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도동서원은 어느 서원과 마찬가지로 책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에 엄격하였다. 이것은 우선 서원에 소장된 책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책의 목록을 만들어 두고 서원의 임원들은 때에 따라 책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빌려 볼 수 있었다. 도동서원에서는 어떤 책이 있었고, 그중에서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도동서원의 도서목록과 대출 대장은 도동서원을 출입하던 사대부들의 일상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선 도동서원이 소장한 책들의 면면은 현재 남아있는 도서목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서원의 소장도서 목록은 대체로 『서책목록』이라는 표제의 성책 문서로 남아있다. 도서는 서원의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목록을 정리하였는데, 도동서원의 도서 목록 가운데 작성 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는 1871년 辛未年, 1877년 丁丑年, 1910년 庚戌年이 있고,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丙午年 8월에 작성된 것이 있다. 전반적으로 소장도서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병오년 목록은 『서책출납치부』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출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보면 대출 대장을 보완하는 자료로 보인다. 『목록』에 등재된 책이 해당 연도에 도동서원이 보유한 책의 전부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장 도서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서책목록』을 비교해 보면 소장 도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세 종류의 목록 가운데 辛未年 목록에는 모두 158종이 있다. 신미년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등재된 서책의 간행 시기를 통해서 추정하면 대체로 187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목록의 처음에는 내사본을 기록하고 이어 경서와 역사서, 다음으로 문집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문집은 『정암집』, 『퇴계집』, 『한강집』, 『정재집』, 『귀암집』, 『북애집』을 필두로 모두 120여 책을 소장하였다.

우선 『도서목록』의 맨 앞은 내사본을 기재하였다. 내사본 도서는 단지 책의 가치를 넘어서 서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동서원에는 『춘추』, 『오경백편』, 『규장전운』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서 경서류를 기재하였다. 경서 다음으로 주자와 이정(二程)의 책 역시 서가의 한 곳을 차지하였고, 역사책도 간간이 있었다. 도동서원의 도서목록을 보니 과연 원규에서 권장한 도서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다만 경서와 사서류의 수량은 당시 소장 도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서원이 소장한 도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동서원을 출입하는 사대부들의 스승이자 선배 학사들의 문집이었다. 소장된 문집을 통해 도동서원의 학문적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다. 도동서원에는 『퇴계집』, 『서애집』, 『한강집』, 『학봉집』, 『점필재집』, 『경현록』, 『정암집』 등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당시 사대부들이 정신적 지표로 삼은 조광조와 김종직의 문집은 물론 영남사람의 학문적 원류라고 할 이황과 그 제사 류성룡, 정구, 김성일의 문집이 있었다. 이와 함께 대구와 성주, 현풍 등 영남 중부 지역의 주요 인물로 이원정(李元禎, 1622~1680), 이담명(李聃命, 1646~1701)의 문집을 소장하였다. 이런 문집류는 소장도서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소장 도서만 보더라도 도동서원 유생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학문적 정체성을 볼 수 있다. 역시 원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노장의 책이나 불교의 서적들은 없었다.

서원이 소장한 도서를 통해서 서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소장 자료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경서는 조선 사회의 표준이자 보편적 지식을 담아내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 또 소장 자료의 70%를 차지하는 문집은 도동서원을 출입하는 이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서원은 지역사회에서 지성의 구심으로 기능하면서, 조선 사회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지식 체계를 정립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 소장된 도서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장은 이를 수시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도동

서원의 문서 가운데 도서목록은 매우 다양하다. 辛未年(1871년 추정)에 작성된 서책목록에는 경사자집이 고루 소장되어 있었으며, 서원을 방문한 이들의 방명록이나 서원에 소장된 노비와 토지의 목록은 물론 서책목록과 제문, 홀기 등이 있다. 문집은 조광조, 김종직, 이언적, 이황, 류성룡, 김성일 등 영남학파의 주요 인사들의 문집은 두루 갖추어져 있었다. 또 이렇게 공간된 책들 이외에 실기나 사적과 같이 비록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개인에 대한 기록들도 소장되어 있었다.

소장된 문집은 서원건립에 간여한 인물들과 관련이 있다. 서원 중건 초기에 심원록을 보면 첫 등재자는 정구이며, 장현광, 이윤우, 허목, 허후, 류영순, 이호문, 윤방이 있었다. 현풍 사족으로는 나세겸, 곽재겸, 곽수, 곽재명이 보이며, 대구의 손처눌, 서사원, 창령의 성안의, 초계의 이대기, 경주의 이의잠, 예안의 김광계, 김광악, 이유도 진주의 성여신, 영천의 정사상, 상주의 조의 등 당시 한강문인을 중심으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내방하였다. 이것으로 향후 도동서원의 운영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을 것은 짐작되는 바이다.

이후에도 도동서원에는 영남 남인계 인사들의 내방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한 수령 비롯하여 인근의 지방관들도 내방하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현풍의 사족들은 한훤당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정구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대구와 성주 등 경상도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하였다. 나아가 안동 경주 상주권 도내 유림 세력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¹⁴⁾ 이런 연장에서 18세기 이후 도동서원에 소장된 문집은 대체로 중건 당시 학문적 경향의 확대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장 자료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丁丑年에 작성된 『서책목록』에는 174종이 등재되어 있는데, 등재된 책의 간행 시기를 통해서 1877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6년 사이에 도동서원 수장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책은 1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시기에 증가한

14) 이수환, 「도동서원의 연혁과 소장자료의 검토」 『도동서원지』, 1997.

책은 모두 문집이었다. 심지어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문집은 즉각적으로 서원이 소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서의 언해(諺解)가 함께 비치되었던 것은 20세기 이후로 짐작된다. 앞서 확인한 『목록』에는 언해가 없었는데, 庚戌年에 작성된 『목록』에는 경서와 함께 언해를 두었다. 아마도 20세기 이후 도서의 보급이 보다 편리해졌고, 풍부한 도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이 소장한 도서는 서원이 건립된 이후 구축된 지식 체계를 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차 확대 보강되었다.

2. 藏書의 활용

서원에서 소장한 서책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지금 대학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서원은 사립 기관이었고,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서원에 소장된 책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대체로 서원에서는 소장된 도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서원의 원규에 도서 대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간혹 도서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있기도 하였다. 책을 서고에만 보관한 다거나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개한다면 책의 활용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 도동서원의 경우 책을 활용하기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도서대출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은 서원을 출입하는 이들이 원한다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도동서원의 책 가운데 지역의 사대부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경서를 읽고 위기지학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를 독려하며 원규를 마련하였던 선배 학자들의 마음이 후배들에게 얼마나 전해질 수 있었을까. 공부하다 보면 내키지 않지만 꼭 보아야할 책이 있는가 하면 바쁜 중

에도 시간을 내서 읽고 싶은 책이 있게 마련이다. 도동서원에 출입하는 이들은 어떤 책을 빌려다 보았고, 자주 읽히는 책은 무엇일까.

우선 도동서원의 『서책출납치부(書冊出納置簿)』를 통해서 소장 도서 가운데 대출 빈도가 높은 책을 살펴보자. 도서목록에는 책의 제목과 수량을 기재하였고, 대출된 책은 누가 얼마나 빌려갔는지 언제 반납하였는지 꼼꼼하게 기재하였다. 『서책출납치부』는 모두 1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은 10행으로 기재하였고 모두 40여 개의 서로 다른 간지가 나열되어 있다. 대략 40여년 동안 서원의 도서 대출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 해에 최소 1건에서 많은 경우에도 5건을 넘기지 않은 정도의 대출 혹은 반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요즘 공공도서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고, 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도동서원의 유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역시 경서인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책을 빌렸다. 책을 대출하는 경우 당일에 바로 반납한 경우도 있으며, 6개월이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책은 3주에서 5주 사이 약 1개월 남짓해서 반납하였다. 생각해보면, 도동서원의 유생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이 서경, 논어, 맹자 등과 같이 지금 들어도 익숙한 경서들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았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다. 그런 종류의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서원에서 대출한 책을 직접 읽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이 보유한 서책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문집은 어떻게 활용되었나. 대출 대장에 이름을 올린 문집은 『퇴계집(退溪集)』, 『서애집(西厓集)』, 『한강집(寒岡集)』, 『학봉집(鶴峯集)』 매우 제한된 선배 학자들의 문집이었다. 정구(鄭逋)는 도동서원에서는 특별한 존재였다. 도동서원을 중건하고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한 정구의 『한강집』은 문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 정구의 문집을 비롯해서 이황과 류성룡 등 영남학파의 사상적 연원이라고 할 이들의 문집 역시 도동서원에서는 인기

도서였다. 다만 경서와 비교하면 소장된 문집의 양에 비교해서 거의 대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문집의 대출은 소수였다.

그러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장 도서를 대출한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과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출 대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 대출이 월등하게 빈번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동서원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은 서원 도서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대출자들의 면면을 보면 개인 대출자는 서원의 전현직 임원과 그들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인물로 제한되었다. 책을 대출한 개인은 한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현직 임원이었다. 서원에서 구축된 지식 체계는 위계를 가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서원은 지식을 담고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 문화에 접근하게 하였던 것이다.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바로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식을 담아내고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가는데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끔은 좀 특별한 대출자도 있었는데, 바로 향교(鄕校)와 관가(官家)였다. 을미년(乙未年) 6월에 관가에서 『한강집(寒岡集)』과 『시전(詩傳)』 그리고 『주문작해(朱文酌海)』를 대출하였고, 계묘년(癸卯年)에는 『소학언해(小學諺解)』, 을사년(乙巳年)에는 『주역언해(周易諺解)』를 대출하였다. 관가에서는 을미년 6월에도 『한강집』과 『시전』을 대출하였고, 4개월 후인 10월에 책을 반납하였다. 개인 대출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출 기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향교에서도 책을 대출하였는데, 을해년(乙亥年)에는 『근사록(近思錄)』을 대출하였고, 병자년(丙子年)에는 『독서록(讀書錄)』을 대출하였다. 관가나 향교에서 책을 대출한 목적은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각 지역에서 관아와 향교, 서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원을 가득 채운 도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을까. 지금까지 서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서원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져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선행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서책의 소장 경위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었다. 첫번째는 도동서원이 사액될 때 국가에서 내려준 '내사본(內賜本)'이다. 『도동중창사적』에 의하면 도동서원의 전신인 쌍계서원(雙溪書院)에는 1573년 사액 당시에 국왕이 내려준 서적을 포함하여 수천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건물과 함께 모두 불타 없어졌다.¹⁵⁾ 이후에 서원은 1605년에 중건되었고, 이어서 1607년에 '도동(道東)'으로 다시 사액이 되었다. 전란으로 인해 많은 책이 사라져 버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서원은 다시 그 모습을 찾아갔다. 이후 도동서원의 위상에 맞추어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책을 내려받았는데, 문묘에 종사된 대현을 모시는 서원을 중심으로 명조, 선조, 영조, 정조대에 걸쳐 모두 29종의 책을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정조대에 많은 도서가 내려졌으며, 도동서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서원에 내려준 책은 주로 경서였는데, 사서오경(四書五經) 위주의 경학(經學) 서적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는 성리서와 역사서를 비롯한 전기류와 주자의 문집 등도 내려주었다.¹⁶⁾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내사본이 있었을 것이다.¹⁷⁾ 그런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목록』에는 『오경백편(五經百編)』과 『춘추(春秋)』,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의 3종만 확인된다. 이렇게 국가에서 받은 책은 보관

15) 『선조실록』 권7, 6년(1573) 11월 28일(갑진); 「萬曆三十二年(1604) 請助呈書」(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1997, 16쪽).

16)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2008, 303~306쪽.

17) 도동서원은 경주 옥산서원과 더불어 1573년 경상감사의 계청으로 사액되어 서적이頒帙되었다. 옥산서원은 사액 이후에도 1577년과 1590년에 걸쳐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도동서원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옥산서원에는 수시로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書冊都錄』과 『傳與記』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사본은 『周易』, 『詩傳』, 『書傳』, 『春秋』, 『禮記』, 『論語』, 『御定春秋四傳』, 『論語諺解』, 『孟子大文』, 『孟子諺解』, 『中庸諺解』, 『性理大全』, 『朱子大全』, 『鄉禮合編』, 『國朝儒先錄』, 『御定朱書百選』, 『朱子語類』, 『御定奎章全韻』, 『御定五經百編』, 『御製雅頌』, 『御製大學續或問』 등이 있다. 도동서원 역시 옥산서원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2005년의 조사를 보면 도동서원에서는 『오경백편(五經百編)』과 『춘추(春秋)』를 별도의 함을 제작해서 보관하였다.

두 번째는 지방관아와 감영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서원에 보냈다. 이것도 크게 보면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지역에까지 고르게 전해져 갔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은 하나의 질서에서 체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사대부가 성장하며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져 갔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책은 대체로 경서류이며, 앞서 소장 도서 목록을 보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서원이 소장한 그 많은 책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일까. 가장 많은 부분은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내거나, 혹은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한 책을 기증한 경우이다. 1969년의 조사에서는 도동서원 소장 서적의 약 70%가 개인의 문집이었고, 이것은 문집을 간행한 이들이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⁸⁾ 기관에서 소장한 책이 이관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고종 대에 많은 서원이 훼손될 당시에 훼손된 서원의 재산과 기물은 일반적으로 향교로 이관하면서 간혹 연고가 있는 서원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도동서원은 이때 송담서원에서 서원 운영에 관한 자료의 일부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때 송담서원의 장서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서원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직접 책을 간행하는 것이었다. 서원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책을 간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구입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의 구입한 도서는 소학(小學)이나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경서(經書)가 주류를 이루었고, 간혹 역사책과 시문류(詩文類)가 일부를 차지하였다. 도동서원의 간행본은 김굉필의 『경현록(景賢錄)』과 『한훤선생사마방목(寒暄先生司馬榜目)』, 『점필재문인록』 정도이다.

18) 이병훈,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2013.

최근에 작성한 도동서원의 소장 자료를 정리한 문서를 보면,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개인이나 혹은 관청으로부터 기증받은 책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서원에 남아있는 서적은 거의 19~20세기 초반에 간행한 책들인데, 1969년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모두 95종에 529책이 소장되어 있었다.¹⁹⁾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에서 도동서원에는 내사본을 비롯한 총 6종 23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동서원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소장 도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 서원에 담긴 지식은 이렇게 서원에 출입하는 이들과 나누었다.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경서와 정호 정이 및 주희의 성리서로 구성되었던 도동서원의 서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더하여 점차 영남학파 지식인들의 문집으로 채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선학의 학문을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하였고, 이것을 자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공간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지식 체계는 조선의 보편적인 지식을 담고 있으면서 지역적인 특수성과 학자 개인의 고유함을 담았다. 본고는 도동서원의 경우를 통해서 조선시대 서원이 책을 간행하고, 수집 보관하면서 보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고유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이것을 확대 공유해 가는 살펴보았다.

『경현록』의 간행은 보편적인 지식 체계가 고유함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조선의 지식 체계에서 형성된 김굉필의 학문은 후학의 관점에

19) 1969년 이춘희의 조사 : 소수서원 141종 563책, 남계서원 59종 317책, 옥산서원 866종 4,111책, 도산서원 907종 4,338책,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필암서원 132종 595책, 돈암서원 78종 245책, 무성서원 미상으로 집계. 이 중 소수·옥산·도산서원에는 입란 이전에 간행된 서적이 다수 확인되는 되지만, 대체로 19-20세기에 집적된 대부분이었다(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서 재구성되었고, 이것은 이후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지역과 소통하면서 고유한 성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동서원은 김굉필의 학문이 정구에 의해 조직되었고, 이것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 두었다. 이후 도동서원이 보유한 도서는 이들을 잇는 학자들의 글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기 정체성은 지역의 지식인들과 소통하면서 확대되었다. 도동서원이 보유한 책은 서원의 임원들을 매개로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책을 대출할 수 있던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기관으로는 향교, 관아, 수령이 있으며 개인으로는 서원의 전·현직 임원으로 제한되었다. 일반인의 대출은 없었던 것은 서원의 도서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고, 서원이 구축한 지식 체계는 위계성을 가지고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출 기간은 짧게는 당일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1개월 이내에 반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해를 넘기기도 하였다. 이 대출 기간은 책의 활용 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책의 가치를 고려할 때 대출한 책을 직접 열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소장 도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임원들과 관계가 중요하였다. 이것으로 지역 사회 지식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도동서원에서 구축된 지식 체계는 서원을 운영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여타 서원과도 다르지 않은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기획,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달성군·달성문화재단, 『道, 東에서 꽃피다』, 2013.
- 달성문화재단, 『도동서원 이야기』, 2014.
-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 이수환, 「도동서원의 연혁과 소장자료의 검토」, 『도동서원지』, 1997.
-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2000.
- 黃義洵,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2000.
-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2005.
-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2008.
-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2, 2011.
- 김훈식, 「道東刊本 『景賢錄』의 편찬과 내용」 『지역과 역사』 32, 2013
- 이병훈,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2013.
-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2014.
-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문사철, 2014.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정수환,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추구: 학문적 가치의 경영원리 적용」 『민족문화논총』 67, 2017.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Sharing of a Knowledge System at the Dodong Seowon in the 18th Century

Kim Jeongun*

Dodong Seowon is one of the greatest Seowons in Yeongnam, having been reconstr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Hangang Jeong Gu (1543~1620) after the Ssanggye Seowon, built by Hyeon Pung in the 16th century, was damaged in war. Dodong Seowon held a religious service for Kim Going-pil (1454~1504) and Jeong Gu, serving to contain the academic identity established by them. In Joseon, Seowons played a huge role in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abilities in society. Their major roles were to publish books and to collect and preserve published books, which became a foundation for them to serve their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This explains why they collected and kept as many books as possible within their monetary budgets and even published books themselves. For Seowons, publication meant arranging their knowledge in an orderly manner and checking the identity of their knowledge. The books housed by Seowons contain the knowledge they were oriented towards with the flow of books showing the spreading direction of knowledge. In this sense, Jeong Gu intended to publish Gyeonghyeonrok, which is a collection of his master Kim Going-pil's

* Lecture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rk in addition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Seowon. Its publication was to define and systemize the nature of knowledge to which the Dodong Seowon was oriented. Since then, the Seowon functioned as a place containing the academic identity clarified by Jeong Gu. In the process, the Seowon collected and kept books published by various institutions and encouraged its members to make an inquiry into group study,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he community's intellectual capabilities.

Keywords: DodongSeowon, Kim Going-pil, Jeong Gu, 『Gyeonghyeonrok junggansihagi』, 『Seochaekmoknok』

이 논문은 2018년 12월 7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2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 -귀태허 공부론과 관련하여-

이우진*

-
- I. 머리말
 - II. 세심동 학당의 강학
 - 1. 세심동 학당의 원칙
 - 2. 세심동 학당의 이념
 - III.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 양명학의 거두(巨頭)인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에서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 세심동 학당의 강학과 오시오 추사이의 귀태허 공부론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했다.

‘세심동(洗心洞)’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에서 ‘양지자연의 영명함을 고스란히 실현하여, 백성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고자 했다. 세심동 학당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선경업(先經業) 후시장(後詩章)’을 따랐으며, 경전 독서에서도 양명학 관련 서적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세심동 학당이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825년 즈음으로, 당시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입학맹서(洗心洞入學盟誓)」와 「학당동계(學堂東揭)」, 「학당서계(學堂西揭)」, 「학당게시(學堂揭示)」를 작성하였다. 그는 이 문건들을 통해 세심동 학당의 교육원리와 내용, 그리고 규칙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심동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서약인 「세심동입학맹서」를 살펴보았다. 이 「맹서」에는 「세심동맹서팔조(洗心洞盟誓八條)」가 담겨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이 곳에서 세심동 학당의 교육원칙과 내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wbronze@hanmail.net

용, 처벌의 대상과 기준, 학당 기숙 생활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오시오 추사이는 특히 명목과 실체가 부합하는 사제관계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성현의 도를 실행하고 그 기쁨과 아픔을 같이하는 동반자적 관계'였다.

두 번째로, 세심동 학당의 교육 이념이 담겨있는 「학당동계」·「학당서계」·「학당게시」를 검토하였다. 「학당동계」는 여곤의 『신음어(呻吟語)』에서, 「학당서계」는 왕양명의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에서, 전덕홍의 「천성편(天成篇)」에서 오시오 추사이가 발췌 인용한 것이다. 「학당서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세심동 학당의 교육은 왕양명의 교지인 양명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양명학은 오시오 추사이의 독자적인 공부론인 '귀태허 공부론'이었다. 「학당동계」에서 볼 수 있듯이, 오시오 추사이는 『신음어』의 문장들은 '귀태허 공부론'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열하여 인용하였다. 그 곳의 가장 우선하는 공부는 '귀태허를 통한 만물일체를 이루고자 공부'였다. 또한 「학당게시」에서도 '양지의 명명을 가리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자연이 고스란히 현실에 현현케하는 공부 이른바 귀태허 공부'가 세심동의 교육이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핵심어)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 세심동(洗心洞), 귀태허(歸太虛), 양명학(陽明學), 공부론(工夫論).

I. 머리말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는 일본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막부(幕府)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인물이다.¹⁾ 그는 대기근에 죽어가는 민중을 외면한 채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사로잡힌 관리와 상인들을 벌하기 위해 이른바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亂)'을 일으켰다. 오시오 추사이의 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봉기가 아니라, 정의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²⁾ 그는 "진정한 영웅호걸은 생사 화복(生死禍福)에 눈이 멀지 않고 이 모두를 하나로 여기는 '강한 신념'이 있을 때에만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³⁾ 그 강한 신념은 '양명학의

1) 大塩中齋(1793~1837), 통칭 헤이하치로(平八郎)라 하며, 휘(諱)는 마사타카(正高), 코소(後素), 자(字)는 코키(子起), 호(号)는 추사이(中齋)이다.

2) 시어도어 젤딘(Theodore Zeldin), 문희경 옮김, 『인생의 발견』, 어크로스, 2016.

3) 大塩中齋, 『洗心洞笥記』 「自述」 "英傑當大事, 固忘禍福生死, 而事適成, 則亦或感禍福生死矣, 至學問精熟之君子則一也." *『洗心洞笥記』의 원문은 "相良亨 外校注, 『佐藤一齋 大塩中齋』(日本思想史大系46) 岩派書店, 1980, pp633~634"에 제시됨. *이후 쪽수는 표기하지 않고 간단히 '上·下, 條目'과 원문만 제시하겠음.

정신'이었다. 바로 "인간은 타자와의 감응능력인 양지(良知)를 바탕으로 금수초목(禽獸草木)은 물론이고 천지와 귀신마저 나와 한 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만물일체의 정신"이고,⁴⁾ 다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욕(私欲)에 의해 지행(知行)이 분리된 것이지 지행(知行)의 본체(本體)는 아니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이었다.⁵⁾



<그림1: 오사카에 있는 세심동학당의 자취>

특히 오시오 추사이는 왕양명의 태허론(太虛論)과 치양지론(致良知論)을 결합시켜 "마음을 태허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귀태허(歸太虛)의 공부론"을 표방하였다.⁶⁾ 그에게 있어 '태허(太虛)는 양지자연(良知自然)의 영명(靈明)함'이다. 따라서 "귀태허는 양지의 영명함에 해악을 끼치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가 지닌 본래의 영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태로 되돌리는 공부"인 것이다.⁷⁾ 이와 같은 "귀태허 공부를 온전하게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소인(小人)의 껍질을 벗고, 혈기(血氣)를 지닌 것에서부터 초목와석(草木瓦石)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물들이 죽거나 꺾이거나 부서진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오시오 추사이는 주장하였다.⁸⁾ 사실상 그

4) 『傳習錄』, 下권, 336條目 "先生曰, 你只在感應之几上看, 豈但禽兽草木, 虽天地也与我同体的, 鬼神也与我同体的." 只在感應之幾上看, 豈但禽獸草木, 雖天地也與我同體的, 鬼神也與我同體的." *『傳習錄』의 조목번호는 "陳榮捷, 『傳習錄詳註集評』, 學生書局, 1983'에 근거함.

5) 『傳習錄』, 上권, 5條目 "先生曰, 此已被私欲隔斷. 不是知行的本體了. 未有知而不行者. 知而不行, 只是未知. 聖賢教人, 知行正是要復那本體."

6) 『洗心洞筭記』, 上권, 48條目 "非積陽明先生所訓致良知之實功, 則不可至於橫渠先生所謂太虛之地位, 故欲心歸乎太虛者, 宜致良知矣."

7) 『洗心洞筭記』, 「筭記跋」 "先生之學, 慎獨乎未發已前, 以痛掃意見情識之害良知者, 故其極, 在歸乎太虛矣. 夫太虛, 則良知自然明也."

8) 『洗心洞筭記』, 上권, 2條目 "軀殼外之虛, 便是天地. 天者, 吾心也. 心葆含萬有, 於是焉可悟矣. 故有血氣者, 至草木瓦石, 視其死, 視其摧折, 視其毀壞, 則令感傷吾心, 以本爲

가 일으킨 봉기는 이 귀태허의 공부의 결과물이라 봐도 과하지 않다. 1833년 이래 대기근이 지속되었는데도 악덕 상인들은 쌀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더욱이 이를 감독해야 할 관리들은 그 상인들을 비호하기에 바빴을 뿐이었다. 그들 모두 굶어 죽어가는 민중을 외면하고 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이와 같은 상인들과 관리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민중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여 자신의 장서(藏書) 5만권을 팔아 빈민 구제와 봉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오시오 추사이의 봉기에는 세심동(洗心洞) 학당(學堂)에서 가르친 양아들 오시오 가쿠노스케(大塩格之助)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 사실에서 세심동(洗心洞) 학당의 강학이념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곳에서의 강학이념은 '귀태허(歸太虛) 공부론'에 근간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세심동에서 시행된 강학의 구체적인 면모는 어떠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심동 강학의 실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심동입학맹서(洗心洞入學盟誓)」를 비롯하여, 「학당동계(學堂東揭)」·「학당서계(學堂西揭)」·「학당게시(學堂揭示)」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⁹⁾ 이에 관한 연구는 현재 우리 학계에 전무한 상황으로,¹⁰⁾ 향후 오시오 추사이의 사상 체계를 온전히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心中物故也。若先有欲而塞心，則心非虛，非虛則頑然一小物，而非天體也。便與骨肉既分隔了，何況其他耶 名之以小人，不亦理乎。”

9) 이 자료들의 출전은 『洗心洞笈記』, 『儒門空虛聚語』, 『增補孝經彙註』 등에서 '세심동 강학'과 관련된 자료를 모은 "高畑常信·小尾郊一, 『大塩中齋佐久間象山』(日本の思想家 38), 明德出版社, 1981, pp284~292"에 근거하였다.

10) 현재 우리 학계에서 오시오 추사이에 관한 연구는 "최재목, 이우진 옮김,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정병규에디션, 2016; 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예문서원, 1996; 최재목, 「공허의 실학: 태허사상의 양명학적 굴절」, 『哲學論叢』 11호, 새한철학회, 1995; 최재목, 「일본 양명학의 전개: 中江藤樹에서 大塩中齋까지」, 『陽明學』 1호, 한국양명학회, 1997; 임태홍, 「일본 양명학과 오시오 추사이: 太虛論의 사상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 임정기,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의 태허(太虛)에 대해서」, 『다산학』 1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가 있다. 하지만 오시오 추사이의 철학에 관한 연구들로, 세심동 학당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Ⅱ. 세심동 학당의 강학

오시오 추사이가 양명학에 입문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4세(1816년)때였다. 그는 여곤(呂坤, 1536~1618)의 『신음어(呻吟語)』를 읽고 양명학에 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당시 유자들의 풍조에 따라 훈고(訓誥)와 시장(詩章)에 빠져 마음의 병이 심하여졌는데 우연히 「신음어」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생각해보니 그 연원이 양명학이었다”는 것이다.¹¹⁾ 사실 여곤의 『신음어』는 주자학과 양명학 가운데 어느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시오 추사이는 그 책을 통해 양명학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¹²⁾ 양명학에 입문한 이듬해(1817년), 그는 자기 수양과 제자 강학을 위한 공간으로 세심동(洗心洞) 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에서 어떠한 강학을 시행했는지는 ‘세심(洗心)’이란 그 이름에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세심이란 용어는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다음 구절에서 제시된다.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어 은밀함에 물러가 감추며, 길흉 간에 백성과 더불어 근심을 함께 하니 신통(神)함으로 미래를 알고 지혜(知)로 지나간 일을 기억한다.¹³⁾

11) 『洗心洞筭記、附錄』 「寄一齋佐藤氏書」 “其時之志，則猶以襲取外求之功，望病去而心正者，而不能免輕俊之患也。乃與崔子鐘少年之無適相同，而非謂材及焉也。而夫儒之所授，非訓誥必詩章矣，僕偷暇以慣習之，故不覺陷於其窠臼，而自與之化，是以聞見辭辯，掩非飾言之具，既在心口，而侈然無忌憚，似病却深乎前日矣。顧與其志徑庭，能無悔乎，於此退獨學焉，困苦辛酸，殆不可名狀也。因天祐，得購舶來寧陵呻吟語，此亦呂子病中言也，熟讀玩味，道其不在焉耶，恍然如有覺，庶乎所謂長鐵去遠瘡。而雖未能全為正心之人，然自幸脫於褚衣一間之罪矣。自是又究寧陵所淵源，乃知其亦從姚江來矣。”

12) 어찌하여 오시오 추사이가 여곤의 『신음어』를 양명학의 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뒤의 ‘학당동계(學堂東揭)’ 분석에서 제시될 것이다.

13) 『周易』 「繫辭傳」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聖人以此洗心，退藏於密，吉凶與民同患，神以知來，如以藏往。”

이를 통해 보자면,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에서 제자들을 '마음에 있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자연(良知自然)의 밝음을 고스란히 실현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백성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할 수 있는 인물¹⁴⁾로 양성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지의 가르침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인물을 길러내는 세심동의 교육론은,¹⁵⁾ 분명 '오시오 추사이의 독자적인 양명학 공부론' 이든바 '귀태히 공부론'이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오시오 추사이의 세심동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강학활동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세심동 학당이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3세(1825년) 때로 짐작된다. 오시오 추사이는 그 해 1월 세심동 학당의 교육론을 제시하는 「학당동계(學堂東揭)」·「학당서계(學堂西揭)」·「학당게시(學堂揭示)」를 작성하고, 이후 4월 세심동의 규칙인 「세심동입학맹서(洗心洞入學盟誓)」를 작성하였다. 세심동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서약인 「세심동입학맹서」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째로 '세심동 학당의 일과'와 '세심동 학당의 게시물들'을 검토하여 세심동 교육의 실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1. 세심동 학당의 원칙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몇 가지 서약을 해야

14) 각주 7~8번 참조.

15) 고지마 츠요시(小島毅)는 『近代日本の陽明学』, 講談社, 2006, p.27"에서 오시오 추사이의 '세심(洗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오시오 추사이의 '洗心'은 타자나 외계에 윤리 도덕의 규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도덕성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름 지은 것'이다. 양명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양지(良知)'의 발동인 것이다. 그에게 학문은 지식 그 자체나 도덕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지식과 도덕률을 배우고 지식과 도덕률에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갖추어진 양지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보잘 것 없는 지식을 현학적으로 자랑하거나 기성도덕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하는 일은 학문하는 자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이었다. 오시오 추사이의 행동주의는 이와 같이 그 '세심동'이라는 사숙(私塾)의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성현의 도(道)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사제(師弟)의 명분(名分)’이 바르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사실상 스승과 제자는 성현의 도를 행하는 동행자이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스승과 제자의 명분(名分)이 바르지 않게 된다면 비록 불선(不善)하고 추한 행위가 있더라도 어느 누가 그것을 금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명분이 진실로 올바로 되어야만 도(道)가 스승과 제자간에 행해지게 된다. 또 도가 행해져야 선인(善人)과 군자(君子)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명분은 학문의 바탕이니 어찌 올바로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오시오 추사이)는 배운 것도 들은 것도 부족하지만 나이가 조금 위라는 이유로 그 (스승이란)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래서 감히 스승이란 이름을 쓸 수 없겠지만, 그 스승이란 명분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음은 대개 아래에 제시된 조목(條目)들을 여러분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입학할 때에 굳건히 맹세케 하여 여러분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¹⁷⁾

여기서 보듯이, 오시오 추사이는 사제(師弟)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그 명목과 본분 사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정명론(定命論)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유를,¹⁸⁾ 오시오 추사이는 사제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사제관계는 교유(交遊)를 통해 도(道)를 행하고 선인(善人)과 군자(君子)를 배출하는 관계이다. 곧 오시오 추사이는 ‘사제관계의 정명론’을 바탕으로 세심동 학당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조목은 모두 여덟 가지로서,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16) 『洗心洞入學盟誓』 “欲學聖賢之道以爲人，則師弟之名，不可不正也。”

17) 같은 책, “師弟之名不正，則雖有不善醜行，誰敢禁之。故師弟之名誠正，則道行乎其間，道行而善人君子出焉，然則名問學之基也，不可不正哉。某雖孤陋寡聞，以一日之長，任其責，則不得辭師之名，而其名之壞不壞，大率在下文條件之立不立，故結盟於入學之時，以預防于其流不善之弊。”

18) 『論語』「顏淵」 “君君 臣臣 父父 子子”; 『論語』「子路」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

1조목: 충신(忠信)을 소중히 여기고 성학(聖學)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나쁜 습속에 휩쓸려 ‘학업을 게을리 하고[廢學荒業]’ 나쁜 짓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의 가정형편에 맞추어 내가 지정하는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구매케 하여 그 책들을 전부 세심동의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기증하게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이후 청출어람(靑出於藍)하여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면, (그 책들을 세심동에 기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가져가든지) 본인 뜻대로 하면 된다.¹⁹⁾

오시오 추사이는 1조목의 첫머리에 공자의 ‘주충신(主忠信)’을 제시한다. 그것은 “거짓 없는 마음의 충(忠)과 남을 속이지 않는 신(信)을 제1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주충신(主忠信)’의 강조는 그의 공부론인 ‘귀태허 공부론’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마음에 어떠한 거짓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충신(主忠信)’은, ‘마음에 어떠한 거짓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귀태허의 공부’와 동일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1조목에는 별칙이 제시되어 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규정한 별칙은 ‘세심동 학당에 장서를 기증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기증된 도서는 세심동 학당에 소속된 재물이 아니라,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면 기증한 도서를 학생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오시오 추사이는 별칙을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의 수단으로서 별칙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목에서도 동일하게 처벌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이 처벌규정은 유가의 성인(聖人)인 순(舜)황제가 교육적 효과를 이루고자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2조목: 학문의 요점은 효제인의(孝弟仁義)를 힘써 실천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

19) 『洗心洞入學盟誓』 “主忠信, 而不可失聖學之意矣. 如為俗習所率制, 而廢學荒業以陷奸細淫邪, 則應其家之貧富, 使購某所告之經史以出焉, 其所出之經史, 盡附諸塾生, 若其本人, 而出藍之後, 各從其心所欲可.”

20) 『論語』 「子罕」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러므로 소설이나 이단사설의 잡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책을 읽었을 때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회초리를 몇 차례 칠 것이다. 이는 순황제가 ‘교육을 위한 형벌로서 회초리로 규정함’ 가르침에 따른 것이지, 내가 결코 만든 것이 아니다.²¹⁾

두 번째 조목은 공자가 강조한 ‘효제와 인의의 실천’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유가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단 잡설이나 시속의 소설을 독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이를 어겼을 때에 ‘회초리를 칠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순(舜)이 마련한 것이라면서,²²⁾ 그와 같은 회초리 처벌은 유가 교육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이 오시오 추사이는 1조목과 2조목에서 ‘주충신과 효제인의 실천’이라는 교육목적과 ‘장서기증과 회초리 처벌’이라는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처벌 규정은 이후 3조목에서 5조목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조목: 매일 학업에 있어서 먼저 유가 경전을 읽고 이후에 시나 문장을 만드는 공부를 해라. 만약 순서를 어길 시에는 몇 차례 회초리를 칠 것이다.²³⁾

4조목: 나쁜 무리들과 몰래 교제하여 기생집에 가고 음주 등과 같은 일탈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한번이라도 어긴다면, (1조목에서) ‘학업을 게을리 한 것[廢學荒業]’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²⁴⁾

5조목: 일단 기숙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학당을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제멋대로 외출하였을 경우, 비록 부모님께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되지 않으며 몇 차례 회초리를 칠 것이다.²⁵⁾

21) 『洗心洞入學盟誓』 “學之要，在躬行孝弟仁義而已矣。故不可讀小說及異端眩人之雜書。如犯之，則無少長鞭卦若干，是即帝舜扑作教刑之遺意，非某所創也。”

22) 『書經』 「舜典」 “扑作教刑.”

23) 『洗心洞入學盟誓』 “每日之業，先經業而後詩章，如逆施之，則鞭卦若干.”

24) 같은 책, “不許陰締交於俗輩惡人以登樓縱酒等之放逸，如一犯之，則與廢學荒業之誡同.”

지금까지의 5조목을 검토해 볼 때, 세심동 학당의 처벌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1·4조목에 해당되는 '학업을 게을리 한 것[廢學荒業]'에 따른 '장서 기증'이다. 또 다른 하나는 2·3·5조목에 해당되는 '회초리 처벌'이다. 여기서 2·3조목은 독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학습에 있어서 유가 경전에 대한 우선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5조목은 '세심동 학당에서 기숙 규정'이다. 이처럼 1~5조목은 다소 엄정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규칙이다. 하지만 이후 제시되는 6~7조목은 '깊은 신뢰와 유대를 공유할 수 있는 사제관계를 만들기 위해 오시오 추사이가 학생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앞의 조목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6조목: 가정에 변고(變故)가 생기면 반드시 나(오시오 추사이)하고 상담해야 한다. 그 일을 도의(道義)에 맞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결코 남의 아픈 가정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²⁵⁾

7조목: 상례·제례·결혼 및 기타 길흉사(吉凶事)가 있다면 반드시 나(오시오 추사이)에게 보고 해야 하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자 함이다.²⁷⁾

진정한 사제지간은 일방적 지배와 맹목적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 관계는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성현(聖賢)의 도를 닦아가는 우정의 연대체(連帶體)인 것이다.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에서 바로 그러한 연대체로서의 사제관계를 추구하였다.

이제 8조목을 살펴보면, 오시오 추사이는 먼저 '제자들이 직무상 과실을 범하게 되었을 때의 처리방안'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다. 그 부탁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小心翼翼)'였다.

8조목: 직무상 과실을 범하였으면,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숨기거나 변호해서는

25) 같은 책, "一宿中不許私出入塾, 如不請某以擅出焉, 則雖辭之以歸省, 敢不赦其譴, 鞭卦若干."

26) 같은 책, "家事有變故, 則必諮詢焉, 以處之有道義故也, 非某欲聞人之陰私也."

27) 같은 책, "喪祭嫁娶及諸吉凶, 必告於某與同其憂喜."

아니 되고, 관청에서 보고하여 조치를 하도록 맡겨야 한다. 부디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신중하고 주의하여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⁸⁾

지금까지 살펴본 「세심동맹서팔조(洗心洞盟誓八條)」에는 세심동 학당의 교육원칙과 내용, 처벌의 대상과 기준, 학당 기숙 생활의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오시오 추사이가 지향했던 사제관계의 양상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세심동 학당의 사제관계는 명목과 실체가 부합하는 관계였다. 다시 말하면 '성현의 도를 실행하고 그 기쁨과 아픔을 같이하는 동반자로서의 사제관계'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측면들이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亂)'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동 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동안 단 한번도 붕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²⁹⁾

2. 세심동 학당의 이념

세심동 학당의 일과는 아침 다섯 시경에 시작하여 저녁 여섯 시경에 마무리된다. 아침 다섯시경 기상과 함께 자리정돈을 하고 세수와 양치를 용모를 바로 한다. 이후 스승 오시오 추사이 앞에서 '양명학 서적(新理書)'을 읽는다. 다 읽고 난 뒤 물러나 자기 방으로 와서 열 번 더 읽고, 의심나는 것이나 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스승인 오시오 추사에게 묻고 바로 잡도록 한다. 양명학 서적을 공부한 다음에는, '주자학 서적(舊理書)'을 공부하도록 한다. 그 방법은 앞의 양명학 서적을 공부할 때와 같다. 책을 읽은 뒤에 글자를 쓰고, 글자를 쓴 뒤에 시를 읽고 암송하며, 이후 운을 맞추어 시를 짓는다. 그리고 저녁 6시 경이 되면 취침을 하여 하루의 마무리 짓는다.³⁰⁾

28) 같은 책, “犯公罪, 則雖親族不能掩護, 告諸官以任其處置, 願僱們小心翼翼, 莫貽父母之憂.”

29) 高畑常信, 『大塩中齋佐久間象山』(日本の思想家 38), 明德出版社, 1981, p23.

30) 「兒童日課大略」 “每曉卯上刻, 收枕席, 皆盥漱梳櫛, 讀新理書, 讀終退而讀其書十過, 疑忘不許放過, 必就正焉, 然後讀舊理書十簡, 疑忘亦復然, 習書而後寫字, 寫字而後誦

이와 같은 세심동의 일과에서 제시된 학업 순서는, 「세심동맹서팔조(洗心洞盟誓八條)의 3조목에 제시된 “선경업(先經業) 후시장(後詩章)의 공부 순서”와 일치한다.³¹⁾ 주목할 만한 점은 유가 경전의 독서에서 ‘양명학 서적에 대한 학습을 주자학 서적보다 우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오시오 추사이가 양명학을 자신의 학문적 종지로 삼았던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을 위해 세 개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두 개는 「학당동계(學堂東揭)」·「학당서계(學堂西揭)」로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심동 학당의 동쪽 벽과 서쪽 벽에 걸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학당게시(學堂揭示)」는 어디에 걸려있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³²⁾

이 세 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오시오 추사이가 양명학적인 가르침이라 여겼던 문장들’이다. 「학당서계」는 왕양명의 문장이고, 「학당게시」는 왕양명의 제자인 전덕홍(錢德洪, 1496~1574)의 문장이기에 당연히 양명학적 특징이 담겨있다. 반면 「학당동계」는 여곤(呂坤)의 『신음어(呻吟語)』에서 발췌한 18개의 문구로서, 양명학적인 가르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오시오 추사이는 여곤의 『신음어』를 읽고서 그 학문적 연원이 양명학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³³⁾ 그 점에서, 이 세 개의 게시물 모두 오시오 추사이가 보건대 ‘양명학적인 가르침’이었다.

「학당서계」는 양명학의 종주(宗主)인 왕양명이 작성한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이다. 이는 왕양명이 용장오도(龍場悟道)를 한 뒤 설립한 용강서원(龍岡書院)에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교육 조목이다. 그 조목은 ‘입지(立志)·근학(勤學)·개과(改過)·책선(責善)’의 총 네 개이다. 왕양명은 “이 네 개

詩背誦，而後韻字平仄就正焉，西中刻就寢。”

31) 각주 22번 참조.

32) 타카하타 츠네노부(高畑常信)는 현재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3개의 문건들은 세심동 학당의 뒤쪽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高畑常信, 앞의 책(1981), p.25” 참조.

33) 각주 11번 참조.

의 교육 조목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서로가 살펴주고 격려하면 학문이 크게 성장할 것"임을 주장하였다.³⁴⁾ 곧 개인적 학습보다는 공동체적 학습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세심동 학당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뒤이어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맹서팔조」의 1조목에서 언급한 '주충신(主忠信)'을 재차 언급하는 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문하에 들어와 도를 배움에 있어서는, 충(忠)과 신(信)으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양명 선생이 용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문장을 써서 게시할 것이니 마땅히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라.³⁵⁾

그리고 「학당게시」는 왕수인의 제자 전덕홍(錢德洪, 1496~1574)이 쓴 「천성편(天成篇)」이다. 세 개의 게시물에서 볼 수 있듯이, 오시오 추사이의 세심당 학당의 이념은 철저히 양명학의 교육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제 이 3개의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학당서계」에 제시된 「교조시용장제생」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³⁶⁾ 따라서 「학당동계」와 「학당게시」만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학당동계」와 「학당게시」에는 오시오 추사이가 주창한 '귀태허 공부론의 이념'이 오롯이 담겨있다. 이러한 만물일체의 정신은 바로 오시오 추사이가 강조하는 귀태허의 공부론과 일치한다. 따라서 귀태허 공부론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오시오 추사이의 '듣는 이(청자)'의 말을 빌려 자신의 귀태허 공부론 소개하는데, 그 공부론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34) 吳光 外 編校, 『王陽明全集』, 26卷, 「教條示龍場諸生」, 上海古籍出版社, 1992 “諸生相從於此, 甚盛. 恐無能為助也, 以四事相規, 聊以答諸生之意: 一曰立志; 二曰勤學; 三曰改過; 四曰責善. 其慎聽, 毋忽!” *이하 간략히 『王陽明全集』으로 표기한다.

35) 「學堂西揭」 “入吾門學道, 以忠信不欺爲主本, 乃記陽明先生龍場諸生語以揭示, 宜服膺.”

36)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우진, 「王陽明 書院講學의 理念과 實際」,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p.181~212” 참조 바람.

선생님이 논한 학문은 세상의 보통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태허(太虛)’이며, 두 번째는 ‘치양지(致良知)’이고, 세 번째는 ‘기질변화(氣質變化)’이며 네 번째는 ‘생사를 하나로 여기는 것(一死生)’이며, 다섯 번째는 ‘허위를 떨치는 것(去虛僞)’입니다.³⁷⁾

여기서 ‘태허(太虛)’와 ‘치양지(致良知)’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이념’에 포괄된다. 오시오 추사이에게 ‘마음을 태허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양지를 실현한다는 것’과 같으며, 그 상태가 되면 이기적 존재로서의 소인(小人)을 탈피하여 ‘타자와 공생·공존·공감하는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³⁸⁾ 그가 보기에 “마음의 허와 입·귀의 허도 본래 하나로 통하며, 또한 이 입·귀의 허는 또 외부의 태허와 하나로 통하기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³⁹⁾ 여기서 ‘마음을 허로 만드는 것은 우주의 태허와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이 또한 천인합일(天人合一)로서의 만물일체가 되는 것이고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기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욕(私欲)을 지닌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을 태허로 되돌릴 수 없다’고 오시오 추사이는 생각하였다. 그 사욕을 벗어던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허위를 떨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귀태허 공부론은 ‘마음을 태허로 돌려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그 중심에 놓는 공부론’인 것이다. 「학당동계」와 「학당계시」에는 이와 같은 귀태허 공부론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

오시오 추사이가 「학당동계」에 제시한 문장은 『신음어』 7장인 「문학(問學)」에서 발췌 인용한 스무 구절이다. 그는 이 문장들을 제시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문하에 들어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도문학(道問學)하여 존덕성(尊德性)하는 것이 요체이기에, 여곤 선생의 말을 적어 학자들에게 계시하니 마땅히 잘 살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⁰⁾ 오시오 추사

37) 『洗心洞箚記』 「箚記自述」 “先生論學，有不協於人情者五焉。一日太虛，二日致良知，三日變化氣質，四日一死生，五日去虛僞。”

38) 각주 8번 참조.

39) 『洗心洞箚記』 上卷，42條目 “方寸之虛，與口耳之虛本通一，而口耳之虛，即亦與太虛通一，而無際焉。包括四海，含容宇宙不可捉捕者也。”

이가 『학당동계』에서 발췌 인용한 문장 순서는 여곤이 지은 『신음어』의 본래 조목 순서와 다르다.

순서 ⁴¹⁾	문장	『신음어』의 본래 순서
1	堯舜事功, 孔孟學術, 此八字是君子終身急務. 或問, 堯舜事功, 孔孟學術, 何處下手? 曰, 以天地萬物為一體, 此是孔孟學術. 使天下萬物各得其所, 此是堯舜事功. 總來是一個念頭.	10
2	脫盡氣習二字, 便是英雄.	26
3	學必相講而後明, 講必相宜而後盡. 孔門師友不厭窮問極言, 不相然諾承順, 所謂審問明辨也. 故當其時, 道學大明, 如撥雲披霧, 白日青天, 無纖毫障蔽. 講學須要如此, 無堅自是之心, 惡人相直也.	1
4	上吐下瀉之疾, 雖日進飲食, 無補於憔悴. 入耳出口之學, 雖日事講究, 無益於身心.	11
5	只人人去了我心, 便是天清地寧世界.	13
6	自德性中來, 生死不變. 自識見中來, 則有時而變矣. 故君子以識見養德性. 德性堅定則可生可死.	14
7	昏弱二字是立身大業障, 去此二字不得, 做不出一分好人.	44
8	世間無一件可驕人之事. 才藝不足驕人, 德行是我性分事, 不到堯舜周孔, 便是欠缺, 欠缺便自可恥, 如何驕得人?	48
9	天下至精之理, 至難之事, 若以潛玩沉思求之, 無厭無躁, 雖中人以下, 未有不得者.	52
10	讀書能使人寡過, 不獨明理. 此心日與道俱, 邪念自不得乘之.	56
11	古之學者在心上做工夫, 故發之外面者為盛德之符. 今之學者在外面做工夫, 故反之於心則為實德之病.	59
12	事事有實際, 言言有妙境, 物物有至理, 人人有處法, 所貴乎學者, 學此而已. 無地而不學, 無時而不學, 無念而不學, 不會其全. 不詣其極不止, 此之謂學者. 今之學者果如是乎?	60

40) 「學堂東揭」 “入吾門欲為人, 則要道問學以尊德性, 誌新吾先生之語, 及學者以揭示, 宜識察焉.”

41) 「學堂東揭」에 제시된 순서

순서	문장	『신음어』의 본래 순서
13	留心於浩瀚博雜之書，役志於靡麗刻削之辭，耽心於鑿真亂俗之技，爭勝於煩勞苛瑣之儀，可哀矣！而醉夢者又貿貿昏昏，若癡若病，華衣甘食而一無所用心，不尤可哀哉？是故學者貴好學，尤貴知學。	61
14	天地萬物，其情無一毫不與吾身相干涉，其理無一毫不與吾身相發明。	62
15	凡字不見經傳，語不根義理，君子不出諸口。	63
16	古之君子病其無能也，學之。今之君子恥其無能也，諱之。	64
17	有志之士要百行兼修，萬善俱足。若只作一種人，硜硜自守，沾沾自多，這便不長進。	81
18	學問之道，便是正也，怕雜。不一則不真，不真則不精。入萬景之山，處處堪遊，我原要到一處，只休亂了腳。入萬花之穀，朵朵堪觀，我原要折一枝，只休花了眼。	106
19	心得之學，難與口耳者道。口耳之學，到心得者前，如權度之於輕重短長，一毫掩護不得。	85
20	『大學』一部書，統於明德兩字。『中庸』一部書，統於修道兩字。	82

〈표1: 『학당등계』의 문장 목록〉

표에 나타난 것처럼, 오시오 추사이가 인용하여 제시한 1~2번 문장은 『신음어』의 본래 조목순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⁴²⁾ 그렇다면 왜 오시오 추사이는 1~2번 문장을 『신음어』의 본래 조목순에 배열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귀태허 공부론의 이념에 따라 인용문의 순서를 재배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처음과 두 번째 인용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요순사공(堯舜事功), 공자학술(孔孟學術)’ 이 여덟 글자는 군자 평생의 급선무이다. 누군가 “요순사공과 공자학술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나는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은 공맹의 학술이요, 천지만물이 그 각각 자기의 올바른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은 요순의 사공으로, 이 모두는 결국 같은 것”이라 답하였다.⁴³⁾

42) 비록 18~20번 구절이 『신음어』의 본래 조목순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3~17번 구절이 『신음어』의 본래 조목 순서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

둘째 문장: 기습(氣習) 이 두 글자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면 바로 영웅이다.⁴⁴⁾

첫 번째 인용문은 ‘요순의 사공(事功)과 공맹의 학술이 동일하게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만물일체론은 오시오 추사이는 귀태허 공부론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으로, 귀태허 공부론의 다섯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태허’와 ‘두 번째 치양지’와 연결되는 논의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귀태허 공부론의 세 번째 특징인 ‘기질변화’와 연결된다.⁴⁵⁾ 곧 이 두 인용문은 귀태허 공부론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로 볼 때, 오시오 추사이가 여곤의 『신음어』 문장을 인용하고 있지만, 인용문의 우선 순위는 자신의 귀태허 공부론에 비추어 재배열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귀태허 공부론에 대한 강조는 「학당게시」에서도 나타난다. 오시오 추사이는 「학당게시」에서 “전덕홍은 「천성편(天成篇)」을 가의서원(嘉義書院)에 게시하여 문인들이 읽도록 하였는데, 나도 이를 세심동에 게시하니 제자들은 매일 이를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직접 왕양명 선생에게서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⁴⁶⁾고 언급하였다. 이 「학당게시」에 인용된 전덕홍의 「천성편」은 그 서두에 ‘양지자연(良知自然)의 영명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3) 「學堂東揭」 “堯舜事功，孔孟學術，此八字是君子終身急務。或問，堯舜事功，孔孟學術，何處下手？曰，以天地萬物為一體，此是孔孟學術，使天下萬物各得其所，此是堯舜事功，總來是一個念頭。”

44) 같은 책, “盡氣習二字，便是英雄。”

45) 특히 두 번째 문장에는 ‘영웅’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오시오 추사이에겐 “영웅이란 생사(生死)를 모두를 하나로 여기는 인물”(각주 3번)이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귀태허 공부론의 세 번째 특징인 ‘기질변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특징인 ‘생사를 하나로 여기는 것(一死生)’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스무 번째 인용문까지 학문의 태도, 마음가짐, 학문 대상, 『대학』, 『중용』의 핵심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46) 「學堂揭示」 “錢緒山天成篇，揭嘉義書院，示諸生，吾亦謹書揭洗心洞，弟子日讀而心得焉，則猶躬親學於陽明先生。” *이 「學堂揭示」에 제시된 「天成篇」의 원문은 “『王陽明全集』，36卷，「年譜附錄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천지 가운데 만물과 섞여 살고 있지만, 천지만물의 주재자가 될 수 있으니, 이는 나의 몸 때문이 아닐까? 나의 몸이 천지만물의 주재자가 될 수 있음은 나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천지만물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일까? 천지만물에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알아 챌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천지만물에는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을 알아 챌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천지만물에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알아 챌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천지만물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감지하는 이는 누구일까? 천지만물의 소리는 그 자체로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들림으로써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천지만물의 색상은 그 자체로 색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보임으로써 색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천지만물의 맛은 그 자체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맛보임으로써 맛이 있게 되는 것이다. 천지만물의 변화는 그 자체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감지됨으로써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면 영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영명함이 훼손된다면, 소리색맛변화를 알아챌 수 없는 것이다. 소리색맛변화를 알아챌 수 없으면, 천지만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만물이요, 만물의 영장이니, 이로서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 47)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영명(靈明)’은 ‘귀태허 공부론’에서도 핵심적인 용어이다. 오시오 추사이는 모든 ‘인간이 영명함의 발동(發動)으로서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그는 이 양지가 삼라만상(森羅萬象)을 포괄하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양지로 인해 사물이 사물일 수 있으며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⁴⁸⁾ 귀태허 공부란 이와 같은 ‘양지자

47) 같은 책, “吾人與萬物混處於天地之中，爲天地萬物之宰者，非吾身乎？其能以宰乎天地萬物者，非吾心乎？心何以能宰天地萬物也？天地萬物有聲矣，而爲之辨其聲者誰歟？天地萬物有色矣，而爲之宰辨其色者誰歟？天地萬物有味矣，而爲之辨其味者誰歟？天地萬物有變化矣，而神明其變化者誰歟？是天地萬物之聲非聲也，由吾心聽，斯有聲也；天地萬物之色非色也，由吾心視，斯有色也。天地萬物之味非味也，由吾心嘗，斯有味也。天地萬物之變化非變化也，由吾心神明之，斯有變化也。然則天地萬物也，非吾心則弗靈矣。吾心之靈毀，則聲色味變化不得而見矣。聲色味變化不可見，則天地萬物亦幾乎息矣。故曰，‘人者，天地之心，萬物之靈也，所以主宰乎天地萬物者也。’”

4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재묵, 이우진 옮김,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2016,

연(良知自然)의 영명함을 되살리는 공부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공부는 “양지자연의 밝음에 해를 끼치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자연이 지닌 본래의 영명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로 되돌리는 공부”이다.⁴⁹⁾ 뒤이은 「천성편」에서는 ‘내 마음의 영명인 양지의 가르침대로 고스란히 따르는 공부’를 논의한다.

나의 마음이 천지만물의 영명(靈明)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인(聖人)이어야 그 영명함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오직 성인만이 이 영명함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은 그리할 수 있다. 성인이 색을 보는 것은 내 눈이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성인의 눈은 색에 이끌리지 않고 하늘이 보는 대로 본다. 성인이 소리를 듣는 것은 내 귀가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성인의 귀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이 듣는 대로 듣는다. 성인이 맛보는 것은 나의 입이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성인의 입은 맛에 이끌리지 않고 하늘이 맛보는 대로 맛 본다. 성인의 사려(思慮)하는 것은 나의 마음(心知)과 같다. 하지만 성인의 마음은 사려에 흐트러지지 않으니, 신명(神明)에 통하는 것이다. 나의 눈이 색에 이끌리지 않으면 온전히 나는 밝아져 성인이 보는 것처럼 볼 것이고, 나의 귀가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면 온전히 총명해져 성인이 듣는 것처럼 들을 것이며, 나의 입이 맛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인이 맛보는 것처럼 맛볼 것이고, 나의 마음에 사려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나의 신명(神明)이 통하여 성인과 같이 변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의 경지는 공부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함은, 이른바 내 마음의 영묘함이 성인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성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다.”⁵⁰⁾

제2부 제3장 2절” 참조 바람.

49) 각주 7번 참조.

50) 「學堂揭示」 “吾心爲天地萬物之靈，惟聖人爲能全之，非聖人能全之也，夫人之所同也。聖人之視色與吾目同矣，而目能不引於色者，率天視也。聖人之聽聲與吾耳同矣，而耳能不蔽於聲者，率天聽也。聖人之嗜味與吾口同矣，而口能不爽於味者，率天嘗也。聖人之思慮與吾心知同矣，而心知不亂於思慮者，通神明也。吾目不引於色，以全吾明焉，與聖人同其視也。吾耳不蔽於聲，以全吾聰焉，與聖人同其聽也。吾口不爽於味，以全吾嗜焉，與聖人同其嘗也。吾心知不亂於思慮，以全吾神明焉，與聖人同其變化也。故曰，‘聖人可學而至，謂吾心之靈與聖人同也。然則非學聖人也，能自率吾天也。’”

성인과 나의 차이는 영명함의 소유여부와 무관하다. 그 영명함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¹⁾ 다만 성인은 그 영명함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으니, 이는 하늘이 시키는 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내 마음의 양지이다. 곧 성인이란 양지의 명령에 고스란히 따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학자의 공부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나의 눈과 귀와 입과 심지를 가리고 있는 색과 소리와 맛과 사려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공부인 것이다. 나에게 있는 하늘의 본래 상태 그대로 현현(顯現)하도록 하는 공부인 것이다.⁵²⁾ 바로 ‘귀태허 공부’이다. 그 공부를 온전히 수행한다면 나의 하늘 즉 양지의 영명함이 모든 삶의 부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다.⁵³⁾ 전덕홍은 그 공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천성편」을 마무리 짓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백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천 번을 한다. 반드시 이 영명함을 따라야 하니 욕망에 의해 가로막힘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일러 ‘하늘의 완성(天成)’ 이라 하고 ‘치양지(致知)의 학문’ 이라 한다.⁵⁴⁾

여기서 말하는 ‘치양지의 공부’는 바로 ‘귀태허 공부’이다. 이 공부는 욕망에 가로막히지 않고 ‘하늘이 지은 바대로 회복하는 공부’, 다시 말해 ‘하늘이 부여한 영명함을 그대로 현실에 현현(顯現)케 하는 공부’이다.

정리하면,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에 제시한 「학당동계」와 「학당계

51) 이후 「天成篇」의 문장에 구체적으로 “吾心之靈與聖人同.”라고 언급하고 있다.

52) 「學堂揭示」 “吾心之靈與聖人同，聖人能全之，學者求全焉。然則何以爲功耶？有要焉，不可以支求也。吾目蔽於色矣，而後求去焉，非所以全明也。吾耳蔽於聲矣，而後求克焉，非所以全聰也。吾口爽於味矣，而後求復焉，非所以全嗜也。吾心知亂於思慮矣，而後求止焉，非所以全神明也。”

53) 같은 책, “吾率吾靈而發之於目焉，自辨乎色而不引乎色，所以全明也；發之於耳焉，自辨乎聲而不蔽乎聲，所以全聰也；發之於口焉，自辨乎味而不爽乎味，所以全嗜也；發之於思慮焉，萬感萬應，不動聲臭，而其靈常寂，大者立而百體通，所以全神明也。”

54) 같은 책, “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必率是靈而無間於欲焉，是天作之，人復之，是之謂天成，是之謂致知之學。”

시」는 모두 자신의 '귀태허 공부론'의 틀과 부합하고 있었다. 그는 여곤의 『신음어』 문장들은 '귀태허 공부론'의 우선순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재배열 하였으며, 「학당게시」을 통해 '양지영명을 가리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는 공부'가 귀태허 공부임을 재확인시키고 있었다.

Ⅲ. 결론

이 글은 일본 양명학의 거두(巨頭)인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에서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그의 독자적인 '귀태허 공부론'과 세심동 학당의 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서론에서 오시오 추사이의 귀태허 공부론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뒤, 세심동 강학의 실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세심동(洗心洞)'이라는 명칭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에서 '마음에 있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자연의 밝음을 고스란히 실현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백성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할 수 있는 인물'로 길러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심동 학당이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짐작되는 1825년 즈음이다. 이 해에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입학맹서(洗心洞入學盟誓)」와 「학당동계(學堂東揭)」·「학당서계(學堂西揭)」·「학당게시(學堂揭示)」를 작성한다. 세심동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서약인 「세심동입학맹서」에는 세심동 학당의 규칙이 제시되어 있었다. 오시오 추사이는 '사제관계라는 정명론적 입장'을 통해 세심동 학당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세심동맹서팔조(洗心洞盟誓八條)」에서 교육적인 원칙과 내용, 처벌의 대상과 기준, 학당 기숙 생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세심동 학당의 교육과정은 '선경업(先經業) 후시장(後詩章)'으로, 양명학 서적을 가장 우선하는 독서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당동계」·「학당서계」·「학당게시」를 살펴보았다. 「학당동계」는 여곤의 『신음어(呻吟語)』에서, 「학당서계」는 왕양명의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에서, 전덕홍의 「천성편(天成篇)」에서 오시오 추사이가 발췌 인용한 것이다. 「학당서계」를 통해, 오시오 추사이가 세심동 학당을 운영함에 있어 '입지(立志)·근학(勤學)·개과(改過)·책선(責善)'이라는 왕양명의 교육이념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공동체적 학습을 강조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음 「학당동계」를 통해, 오시오 추사이의 교육이념이 '귀태허를 통한 만물일체 실현을 중심에 놓는 공부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사이가 추사이는 「학당동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신음어』 문장들을 '귀태허 공부론'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열하고 있었다. 이러한 '귀태허 공부론'에 근간한 사유는 「학당게시」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세심동의 교육이념은 '양지의 영명을 가리는 의견(意見)과 정식(情識)을 제거하여, 양지가 고스란히 현실에 현현(顯現)케 하는 공부'였다.

 참고문헌

- 『論語附諺解』, 學民文化社, 1990.
- 『書傳附諺解』, 學民文化社, 1990.
- 『周易附諺解』, 學民文化社, 2015.
- 高畑常信·小尾郊一, 『大塩中齋佐久間象山』(日本の思想家 38), 明德出版社, 1981
- 相良亨 外 校注, 『佐藤一齋 大塩中齋』(日本思想史大系46) 岩派書店, 1980.
- 小島毅, 『近代日本の陽明学』, 講談社, 2006,
- 시어도어 젤딘(Theodore Zeldin), 문희경 옮김, 『인생의 발견』, 어크로스, 2016.
- 吳光 外 編校, 『王陽明全集』, 26卷, 「教條示龍場諸生」, 上海古籍出版社, 1992.
- 陳榮捷, 『傳習錄詳註集評』, 學生書局, 1983.
- 최재목, 이우진 옮김,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정병규에디션, 2016.
- 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예문서원, 1996.
- 이우진, 「王陽明 書院講學의 理念과 實際」,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 임정기,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의 태허(太虛)에 대해서」, 『다산학』 1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 임태홍, 「일본 양명학과 오시오 추사이: 太虛論의 사상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연구』 1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
- 최재목, 「공허의 실학: 태허사상의 양명학적 굴절」, 『哲學論叢』 11호, 새한철학회, 1995.
- 최재목, 「일본 양명학의 전개: 中江藤樹에서 大塩中齋까지」, 『陽明學』 1호, 한국양명학회, 1997.

<Abstract>

The study on Oshio Chusai's teaching in Sesimdong Academy

Lee Woo-j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ducational activities conducted in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洗心洞) academy by Oshio Chusai(大塩中齋), the prominent figure in the Japanese School of Wang Yangming. And, I would also like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educational philosophy in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g academy and Oshio Chusai's philosophy.

As shown in the name of 'Cleansing the Heart Hollow(洗心洞)', Oshio Chusai wanted to cultivate excellent scholars who have the ability of extension of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and sympathize with a people. Reading books related with learning of Wang Yangming School is the top priority of the curriculum in that academy.

In 1825,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 academy had become a full-fledg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same year, Oshio Chushai wrote '*The Oath for admission in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 academy*(洗心洞入學盟誓)', '*The estern wall post in academy*(學堂東揭)', and '*The western wall post in academy*(學堂東揭)'. In these works, Oshio Chusai presented the principles, contents, and rules of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 academy.

*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cowbronze@hanmail.net

The learning of Wang Yangming School(陽明學) is the educational philosophy in Cleansing the Heart Hollow academy. More specifically, that thought of Wang Yangming School is Oshio Chusai's unique self-cultivation theory, 'the returnig the Supreme Void(歸太虛).'

〈key words〉 Oshio Chusai(大塩中齋), the Cleansing the Heart Hollow (洗心洞), The returnig the Supreme Void(歸太虛), The learning of Wang Yangming School(陽明學), self-cultivation theory (工夫論).

이 논문은 2018년 11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27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 연구

블라미르 글롬브, 마틴 겔만*

-
- I. 머리말
 - II. 북한의 서원 유적과 관리
 - III. 북한 사학과 서원
 - 1.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의 서원 인식
 - 2. 북한 교육사에서의 서원 인식
 - 3. 북한의 서원경제에 대한 연구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북한의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연구를 소개한다. 북한에서 서원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역사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의 연구는 현재까지 북한의 서원 연구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북한 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여러 학술 분야에서 (사학, 교육학, 건축학 등등) 나온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서원관을 분석한다. 북한의 정권이 창건한 후에 서원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그 때 출판된 책과 논문을 보면 여러 흥미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왜 세개의 서원이 문화유산보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북한의 서원, 북한 연구, 소현서원, 옹곡서원, 송양서원

* 제 1저자 Vladimir Glomb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vladbus2000@yahoo.com), Martin Gehlmann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martingehlmann@fu-berlin.de).

I. 머리말

해방 후 북한 서원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서원은 억압적인 봉건기구의 일부로 여겨지고 해방 후 모든 서원 활동은 금지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북한을 여행하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의 학자 야로슬라프 바친카(Jaroslav Bařinka)는 그때 북한 서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 북한에는 [흥선대원군의 휘철령부터] 거의 1세기가 되어서 서원이 거의 다 훼손되고 드물게 남아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예전의 아름다운 환경의 암시적인 유적지이다. [...] 서원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오늘날에 최소한의 관심만을 끌고 있다. 한국 전통 지방의 복잡한 과거를 목격한 서원은 가장 엄격한 보수주의의 대표로 알려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대 한국인들의 경멸을 받는다.¹⁾

그 주제에 대한 북한에서의 연구가 별로 없는 것도 북한 서원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출판된 서원 관련 책, 학술 논문을 보면 북한 서원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별로 없다.²⁾ 북한의 학술 연구도 많지 않다. 그러나 출판된 논문과 책에서 서원에 대한 입장은 북한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다. 적어도 서원 주제에 대하여 연구된 학술 논문 수로 판단하면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상이 되었다.³⁾ 또한 문화유산의 분야에서도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1) Bařinka, Jaroslav. 「Staré konfuciánské ústavy v Koreji (옛날 한국의 서원)」, 『Nový Orient』 23, 1968, p.266.
 - 2) 현재의 북한에 위치한 서원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조상순, 『북한의 서원과 사우』 (2012)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든 북부 서원의 상세한 목록은 서원 연합회, 『한국 서원 총람』 (2011, pp.1115-1219)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박중배·蓮池重代의 「읍지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평양의 학교와 그 운영」 (『교육사학연구』 27, no.1, 2017)과 정순우의 「朝鮮時代 開城府 崧陽書院의 性格과 學術活動 -北韓所在 書院 研究를 위한 試論的 論議」 발표문(베를린자유대학교 세미나발표문, 2017.5.4.)이 있다.
 - 3) 지난 10년 동안 서원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출판물 수가 증가 하였다(북한 기준에 의해 측정됨). 최근에는 중국 서원을 다루는 연구도 있다. (리수일, 「중세 중국에서의 서원교육에 대한 몇가지 고찰」, 『력사과학』 205, no.1, 2008, pp.55-57)

이 논문은 북한의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연구를 소개한다. 북한에서 서원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역사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의 연구는 현재까지 북한의 서원 연구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북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서원 유적과 관리

윤희면의 분석에 따르면 북부 3개도[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에는 전국 680개소 중 58개소의 서원이 존재했고, 사우(祠宇)는 전국 1,041개소 중 135개소가 있었다. 반면 경상도에는 370개소의 서원이 확인된다.⁴⁾ 이러한 분포는 조선시대 북부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을 경제적인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비율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 후에 남아있는 이른바 '辛未存置' 47개소의 사액서원·사우의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북한 지역에 훼철되지 않은 도학서원은 울곡 이이를 제향하는 배천군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건립연대 미상, 1568 사액), 박세채를 제향하는 장연군의 봉양서원(鳳陽書院, 1695건립, 1696 사액)으로 모두 황해도에서 있다. 함경도 북청에는 이항복을 제향하는 노덕서원(老德書院, 1627 건립, 1687 사액)이 있다.⁵⁾ 사우로는 평안도에 충민사(忠愍祠, 南以興), 표절사(表節祠, 鄭著), 수충사(酬忠祠, 休靜), 삼충사(三忠祠=臥龍祠, 諸葛亮) 그리고 평양에 무열사(武烈祠,

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84. 이에 따르면 함경도 15개소, 평안도 18개소, 황해도 25개소로 나타난다. 정확한 수치는 사용된 방법이나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순우는 전통적인 자료 『燃藜室記述』을 기준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황해도에서 20개소의 서원이 있으며, 평안도 20개소와 함경도 10개소의 서원이 있다. 1908년 편집된 『增補文獻備考』를 따르면 황해도에 20개소, 평안도에 16개소, 함경도 11개소의 서원이 나타난다.

5) 윤희면, 앞의 책(2004), pp.163-165.

石星)가 있으며, 황해도에는 청성묘(淸聖廟, 白夷叔齊), 태사사(太師祠, 申崇謙)가 있다.



송양 서원 (개성시)

정 윤룡 촬영

개 성 난 봉 가 리 영 산 총 장

괴 물 하 게 의 목 모 관 장

1. = 72 - 84
 2/4

풀이 - 어 - 어 아 - 열 화 열 - 화 총 고 총 - 다
 어 루 마 - 흥 - 흥 - 내 사 - 망 - 아
 벽 - 변 - 북 모 - 총 리 나 리 는 물 - 은 -
 범 - 사 - 정 으 모 - 연 시 드 라 든 - 다

〈사진 1〉 개성 송양서원이 나오는 북한의 1950년대 엽서 (앞면)

새로운 북한 정권은 서원의 유교 문화에 적대적이었고, 서원 제도를 지지한 양반 계급을 완전히 청산했다. 동시에 서원은 국가 재산으로 되어서 인민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서원의 수용과 국유화 과정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 서원의 존재는 의미를 상실하였다. 서원의 서적과

문서는 압수당했고, 버려진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원의 건물도 물리적인 손상을 당했다. 많은 서원이 한적한 곳이나 시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도시에 위치한 서원과 사우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많은 서원이나 관련 유물이 남아있었다. 1950-1960년대에 많은 서원이 존재했다는 내용은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로 전해진다. 이것은 실제 북한의 문화유산과 재산을 다루는 몇몇 공식 출판물에도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서원이 국가의 인정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북한에서 서원을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日帝에 의하여 紹修書院이 역사적 유물로 인정된 선례를 따라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1956년 《물질 문화 유적 보존위원회》에서 간행한 『중요 유적명승 천연기념물 일람』에는 황해도 석담의 紹賢書院과 개성에 있는 崧陽書院도 포함되어 있다.⁶⁾ 1966년에 출판된 『명승, 고적 천연 기념물 편람』⁷⁾에서는 소현서원만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많은 鄕校와 여러 현존하는 서원의 상세한 지도도 실려 있다. 일례로 소현서원, 승양서원, 배천 문희서원, 재령 景賢書院, 운흥 함경서원 등은 서원이 현전하고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있지 않는 龍津書院, 문천 汶浦書院, 개천 한천서원 경우에는 서원의 원래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 청진 지역에서는 崇烈書院 遺墟碑가 나타난다. 이상의 두 조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⁸⁾ 북한의 문화 보전 체제 내에서 서원의 견고한 입지를 보여준다.

6)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 『중요유적명승 천연기념물 일람』, 평양, 1956, p.151.

7) 문화유물보존연구소(최규한 편집),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평양, 군중문화출판사, 1966, p.51.

8) 생략된 서원의 예는 고려 충신들을 배향한 개성 근처의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활동하였고, 1937년에는 서원지를 간행하였다. 현재 까지 건물이 보전되어있다.



〈사진 2〉 1885년(고종 22) 송렬서원 유허비,
함경북도 청진시, Jaroslav Bařinka 1957

1950년대에 학교로 사용된 향교와는 달리 서원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방치되었다. 서원은 용곡서원과 같이 과학원의 휴식처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서원에 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로 보고하지만 서원은 일반적으로 반동적인 봉건 세력의 유산으로 이해되었다. 전후 시기의 서원은 특별히 탐구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북한의 고고학과 미술 역사 연구는 과거 시대의 유물이나 유명한 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서원의 건축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 기간의 미술사에 대한 최고의 학술지 『문화유산』은 오직 종성향교만을 묘사하였고,⁹⁾ 권위있는 『고고학보』와 『고고민속』은 서원을 전혀 언

9) 박항식, 「종성 향교의 건축 양식」, 『문화유산』, 1957.4, pp.42-44.

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문화재 관리자들에게 서원은 조선후기의 튼튼한 건물들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 문화사』에서 서원 건축에 대한 짧은 설명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¹⁰⁾

16세기 후반기에 건설된 서원들로서는 옥산서원(1572), 소현서원(1578), 도산서원(1574) 등이 대표적이다. 서원은 그 기념하는 인물들의 별장과 살던 집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서원건축 형식에는 당시 양반 계급의 주택형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종교기관 건축은 봉건통치계급이 추구하는 계급지배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교의 제사에 쓰이거나, 봉건유교사상의 선전수단으로 쓰이는 극히 형식화, 형태화된 것으로 거기에서는 인민들의 우수한 건축술이 거의 반영될 수 없었다.¹¹⁾



〈사진 3〉 소현서원 은병정사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2018

1989년에 출판된 『조선 건축사 I』는 서원의 형식화된 건축에 대하여 비슷한 언어로 소개한다.¹²⁾ 서원에 대한 관심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은 남한

10) 최택선, 허해숙, 『조선문화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77.

11) 최택선, 허해숙, 앞의 책(1977), p.444.

에 위치한 서원과의 통일 문제였다. 북한에서 시행된 한국 문화유산에 관한 많은 조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예품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남측과의 연결 관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한국의 유명한 서원에 대한 보존 노력을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명승편람』에서는 소현서원을 아래와 같이 남한 서원과 더불어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 소개하였다.

이 건물은 리률곡의 생가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오죽헌》, 경상북도 레안에 있는 퇴계 리황의 《도산 서원》, 개성의 《송양 서원》(정몽주의 옛집) 기타 등과 함께 우리나라 옛 서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요 유적이다.¹³⁾

최근 수십 년에 문화적 유물에 대한 대표적인 개요에서 용곡서원, 수양서원, 소현서원을 북한의 3대 서원으로 소개하고, 그곳의 건축과 역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60~70년대 주체사상이 확립되어 가면서 북한 정권 초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해당 서원 관련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83년 『우리나라 력사유적』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용곡서원에 입문을 소개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룡곡서원을 원상대로 보수하여 유적으로 보존하여 인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¹⁴⁾

용곡서원의 경우 김일성의 정확한 방문일(1963년 3월 10일)이 명시되어있다. 소현서원에는 2번 방문하여(1960년 9월과 1974년 11월), 그 때 “위대한 수령은 자연 경관에 대해 논평하고 그 위치가 문화 휴식토로 바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¹⁵⁾ 김정일의 시대에도 이 정보가 유효했다.¹⁶⁾ 이런 사실을 보

12) 리화선, 『조선 건축사 I』,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9, p.427.

13) 문화유물보존연구소(최규한 편집),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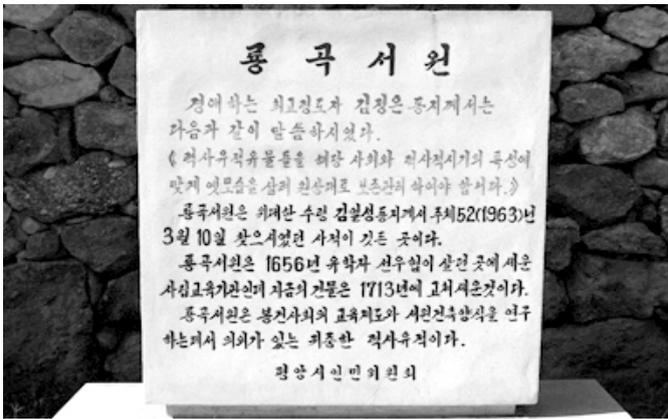
14) 문화보존연구소, 『우리나라 력사유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39.

15) 주성철, 림호성, 김승일, 『장군님과 력사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4, pp.176-186.

면 서원은 북한 정권의 시작부터 문화유산의 대상 범주에 속하여 유명한 [승양, 용곡, 소현]서원의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¹⁷⁾



〈사진 4〉 용곡서원, Jaroslav Bařinka 1960



〈사진 5〉 용곡서원 안내판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2018

16) 리철, 리기용, 『문화 유산 애호가들의 벗』, 평양, 조선 문화 보존사, 2005, pp.98-99. 그는 용곡서원과 소현서원을 “여러 차례 찾으시고”라고 했다.

17) 유명한 서원은 건물이 남아있으나 고문서나 현판과 같은 기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Ⅲ. 북한 사학과 서원

서원은 일반적으로 한국사의 중요한 기관으로 인정되었고, 북한에서도 서원은 조선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서원에 관한 설명은 간략한 언급에서부터 여러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간행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았다. 매우 간결한 『조선사 년표』조차도 한국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설립과 관련하여 1543년(중종 38)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¹⁸⁾

1950년대에 북한 역사학 저서는 서원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인 인식을 확립하였다.¹⁹⁾ 서원을 다루는 저서 가운데 1956년 박시형(朴時亨, 1910-2001)이 저술한 『조선 통사』와 『조선 중세사Ⅱ』가 대표적이다.

『조선 통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의 력사연구소에서 간행하였다. 그것은 북한에서 출판된 학술적 역사서의 첫 번째로 간주될 수 있다. 이후 유사한 저서가 1962년에 『조선 통사Ⅰ』과 1977년에 『조선 통사』로 출판되었다. 그 후에는 1980년에 『조선 전사』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수십 권의 『조선 단대사』로 계승되었다. 이 모든 저술은 『조선 통사』를 저본으로 한다.

서원의 분석에서 주요 초점은 “서원과 향약 등은 결국 지방의 량반 지주들이 집단적 세력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조직”²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원은 인민을 억압하는 기구로서만 해석되었다. 『조선 통사Ⅰ』에서는 서원에 대하여 “지방 량반들이 모여서 그들과 관련 있는

18) 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사 년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7, p.282. 1983년에 출판된 『조선 전사 년표Ⅰ』은 1543년(중종 38)에 서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지만 1550년(명종 5)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소수서원을 사액을 언급하고 있다.(오희복, 『옛 사람 이름 편람』,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p.124).

19)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개요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강인구·이성미 지음, 『북한의 한국학 연구 성과 분석·역사, 철학』,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0) 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 통사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p.371.

력사상의 유명한 학자 정치가장군 등을 제사 지내며, 또 거기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²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억압받는 인민 대중과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서원, 향약, 향교 등 량반 지주들의 집단적 세력은 각 지방에서 봉건 통치의 쇠사슬을 늘여서 인민들을 락탈하고, 그 둘의 반항을 탄압하는 강포한 토대로 되었다.²²⁾

서원에 대한 비판은 본연의 교육적 의도를 포기하고, 권력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원래의 유교 이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원들에 모인 량반들의 대부분은 공자, 맹자(孟子)를 외우고 정자(程子), 주자를 운운하면서 강의와 토론을 하고 훗날의 정권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원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운 일상적 리익에 더욱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 그것은 당장에 집단적 권력을 리용하여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었다.²³⁾

대부분의 북한 역사학 서적에서는 서원에 대하여 위의 인용문과 비슷한 부정적 비판을 반복한다. 서원의 역할에 대한 50-60년대 일반 인식을 찾으려면 과학원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간행물보다 간단하고 간결한 역사 교과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의 서원 인식

1950년대 북한 정부는 대학에서부터 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 이르

21) 과학원 력사 연구소, 앞의 책(1956), pp.370-371.

22) 과학원 력사 연구소, 앞의 책(1956), p.371.

23) 박시형, 『조선 중세사 II』, 평양, 국립출판사, 1956, p.175.

기까지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여러 교육 출판물이 나왔다. 대학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북한 청소년을 위하여 서원의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소개하였다. 실제 1956년에 출판된 「조선 력사 교과서 용어 해설」에서는 서원의 역사와 의미를 짧지만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기관은 새로운 교육 과정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새로운 교육 자료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1956년에 출판된 「조선 력사 교수 참고서」가 있다. 이 책은 초급중학교의 역사 과목 교사를 위한 것이다. 역사학자 오장환이 저술한 이 책은 1955년 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참고서로 제작되었다. 이 서적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서원을 포함한 한국 역사를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서원과 관련된 수업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0 장

16세기의 국내 형편과 1592-98년의 조국 전쟁 (12 시간)

제1수업

1. **수업 제목** : 량반들 내부의 분렬과 봉건적 중앙 집권의 약화.
2. **수업의 기본 내용** : 16세기 이후 중앙의 량반들은 더욱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전이 사전으로 된 것이 많았으므로 국가에서는 관리들에게 소정의 토지를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앙의 량반 자체 내에서는 토지 쟁탈전이 격화되게 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중소 토지 소유자인 사림(士林)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략탈하기 시작하였으며, 향약도 조직되게 되면서 인민들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강화 되었다. 그리하여 1560년의 립 걱정(立君)의 투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격화 되었다. 또한 중앙의 량반들과 사림들과 정권 쟁탈전인 소위(小威)도 계속 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앙 집권제는 급속히 약화 되었다.

3. **교수 교양의 목적** : 16세기 이후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의 모순의 로출과 지배 계급 내부에서의 정권 쟁탈전을 분석함으로써 1592-98년 조국 전쟁 직전의 국내의 정치 경제 형편을 리해 시킨다.
4. **교원의 준비** : 서원의 사진, 향약의 조직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6〉 오장환, 『조선력사 교수 참고서』, 평양, 교육 도서 출판사 1956, 298쪽.

5. **수업 행정** : [...] 사림은 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토지 소유자들이였다. 그들은 중앙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부패성을 규탄하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하며 나아가서 정권 쟁탈전에 진출하였다. 이것을 말하면서 서원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서원은 중앙의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자기들의 경제적 기초를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창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원은 표면상으로는 그 지방 인민을 교화하고 인재를 교육하고 유명한 학자들을 제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명하에 서원에 많은 토지를 집중시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그 지방에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착취 기관 이였다.

6. 복습 문제

- ㄱ. 사림 량반이란 어떤 것인가?
- ㄴ. 서원과 향약이란 어떤 것인가?
- ㄷ. 사회와 당쟁은 어떻게 일어 나게 되었는가?²⁴⁾

24) 오장환, 『조선력사 교수 참고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pp.296-300.

당시 역사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서원을 양반의 권력 투쟁에 관여하는 기관들과 사람들의 억압 도구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서원의 긍정적인 문화적 또는 교육적 역할을 교과서에서 온전히 언급을 하지 못했다. 교과서의 목적은 젊은 세대에게 서원의 부정적인 역할과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북한 교육사에서의 서원 인식

서원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은 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나 교육적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았다. 교육 역사에 관한 몇몇 북한 간행물은 서원의 역할을 이 맥락에서 분석했다. 1947년, 1961년, 2012년에 각각 『조선 교육사』라는 동일한 제목의 세책이 초기, 중기 및 현대 분야에서 이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이만규(李萬珪, 1882-1978)는 1947년 『조선 교육사 I·II(朝鮮 教育史 I·II)』를 간행하였다.²⁵⁾ 이 책은 1930년대에 이미 서술하였지만 출판되지 못했던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많은 한국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공유된 한국 역사(서원 포함)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만규는 1948년 평양으로 가서 교육사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해방 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사에서 최초의 저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만규의 책이 권위있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1958년에 출판된 『인민 교육』이라는 학술지의 인용문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사》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이 없다”²⁶⁾라고 한 점에서 잘 들어난다.

이만규는 교육역사 연구를 계속하였고, 1957년에는 「조선 교육사 연구 및 자료 I」라는 교사를 위한 참고서를 출간하였다. 여기에서도 서원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책은 조선 교육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참고하고, 앞으로 정식 조선 교육사를 편찬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25) 이만규, 『조선교육사 I』, 서울, 을유문화사, 1947, p.2.

26) 리남산, 「조선 교육사 참고 자료를 읽고」, 『인민 교육』 8, 1958, p.26.

여 공간한 것이다.²⁷⁾

1961년에 새로운 『조선 교육사』가 출판되었다.²⁸⁾ 다른 북한 자료와 비교하면 서원의 정신적, 교육적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보았다.

이렇듯 서원은 많은 부정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문도제 교육의 발전과 주자학의 이론적 발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²⁹⁾

또한 서원 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통치계급이 윤리도덕의 교육과 실천을 강제함으로써 피지배 계급의 맹종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켰으며, 나아가 수십만의 청장년이 노동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1961년의 교육사에서 서원을 평가한 것은 거의 빠짐없이 부정적이었다.

통치 계급들은 삼강오륜의 분리 도덕과 유교의 명분 사상으로 후대들을 철저히 교양하였고, 젊은 세대들의 생활을 빈쇄하게 하고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형식적인례절로 모든 것을 복종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을 억제하였다. 주자학설의 독단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는 억압되었으며, 학생들의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은 마비되었다. 지배 계급들은 교육을 독점하고 피지배 계급들에게는 오직 맹종과 무지만을 강요하였다.³⁰⁾

수십만의 청장년들이 선비라는 명목 하에 산업에서 유리되고 무위도식하였으며 로동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였다.³¹⁾

27) 이만규, 『조선교육사 연구 및 자료 I』,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7, p.2.

28) 이 책은 원래 평양에 교육도서출판사에 출판되었으며, 1963년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의 학우서방이라는 출판사에 의해 증쇄되었다.

29) 이만규, 『조선교육사』, 동경, 학우서방, 1963, p.58.

30) 이만규, 앞의 책(1963), p.86.

31) 이만규, 앞의 책(1963), p.87.

서원은 지방에서 소위 아름다운 풍속과 례의 도덕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이러저리한 구실 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³²⁾

3. 북한의 서원경제에 대한 연구

서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북한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봉건 사회에 대한 북한의 견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1950년대 한국 서원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북한학자는 오장환으로 1956년 『력사 과학』에 게재한 「서원에 대한 약간의 고찰」이 있다.

오장환의 연구는 오늘날조차 서원에 관한 가장 정확한 북한의 역사적 연구로 남아 있으며, 서원에 관한 북한 학자들의 질문과 조선시대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자의 이름은 이미 한국 역사를 위한 초기 교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었다. 오장환은 사실 다작 역사가였고, 서원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였다. 그는 또한 고려의 쇠퇴에서 사찰의 역할과 조선의 쇠퇴에서 서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최초의 북한학자 중 한 명이었고,³³⁾ 두 주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³⁴⁾

서원 재산 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오장환의 시도는 북한 학자들에게 토지의 형질 전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61년에 간행한 『조선 토지 제도사Ⅱ』는 서원의 토지 재산 문제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서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원의 국유지 할당은 어떻게 정확히 기능 했는가? 호적(戶籍)의 공식 자

32) 이만규, 앞의 책(1963), p.58.

33) 몇 년 후 김석형은 양반 기관에 관한 연구에서 두 기관을 간략히 비교했다.(김석형, 「량반론」, 『력사 논문집』 3, 1959, pp.80-88).

34) 오장환, 「리조 봉건 시기 사원 경제의 몇가지 고찰」, 『력사 과학』, 1955, pp.44-58.

료가 신뢰할 만한가? 원노(院奴)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장환은 19세기 초반에 간행된 義州郡의 읍지 『龍灣誌』를 통하여 서원[사액서원 2개소, 미사액서원 4개소]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공했다.³⁵⁾ 읍지에 기재된 모든 토지를 변환하여 계수해보면 각각 서원의 평균 토지 소유면적이 남한의 중요 서원과 비교하여 수백 배 더 적었다.

토지 소유 그 자체는 그것을 소유 또는 지휘하는 노동력으로 구성된 서원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힘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서원 설립 과정에서 고을의 장로와 여러 선비들이 토지 보조금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인적 자원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형태의 지원은 종종 지방관으로부터도 얻어졌다. 그들은 인력뿐만 아니라 귀중한 자원(목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다.

원노(院奴)는 종종 서원에 토지 보조금과 함께 주어졌으며, 서원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孝宗의 통치 시기(1649-1659)에는 사액서원은 7명, 미사액서원은 5명으로 제한되었다. 서원 노비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실은 그 숫자가 사실상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비제도의 유전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함.) 그러나 노비는 생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며 주로 서원 내 다양한 업무에 사용되었다.

서원 경제의 중추는 농민들이 자기의 적은 땅 가지고 서원으로 투탁한 募入人이었다. 이들은 당시 성장하고 있는 사유지에 인력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서원에는 많은 농민들이 집결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院僕', '保戶', '保率', '募入人' 등의 명칭으로 불려 지면서 農奴적인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35) 실제 『용만지』를 확인해보면, 서원은 없으며 향교를 제외하고 향사를 목적으로 건립된 것은 사우와 영당이 확인된다. 이를 보면 사액사우로서 紀忠祠(乙巴素·金尙憲·李祖源)와 顯忠祠(姜邯贊·林慶業·崔孝一·車禮亮·安克誠·張厚健·車元轍·車孟胤·黃一皓)가 있으며, 미사액 사우·영당으로는 李裕元影堂·鶴峯祠·龜巖祠·龍峴祠 등이 확인된다. 『용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참조) 오장환은 이들 사우를 서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용만지』에는 각 사우의 소속 院生 정원과 納米生 정원, 부속건물 및 논밭의 면적과 祭器와 留錢, 제향시 사환하였던 書員生의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다양한 기록에서 관찰된다.³⁶⁾ 서원에 들어간 농부들의 주된 동기는 서원이 제공하는 세금과 軍役의 면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와 함께 서원에 자신을 투탁하였고, 서원은 재산을 더 확대하게 되었다. 이 과정의 최종 결과는 농민들로 구성된 전체 마을을 만들어 서원촌(書院村)이라고 하였으며, 서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

오장환의 분석에서 서원의 힘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돈이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 학자들은 화폐 경제의 출현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 이 현상은 현대 학자들에 의해 선진국 발전의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후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담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의미했다.

화폐 경제는 자본주의 생산 제도의 지표 중 하나 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 그 존재는 자본 축적의 첫 단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모든 정치적 결과(프롤레타리아의 출현 등)가 있는 봉건적인 사회에서 부르주아 사회로의 이행이 뒤따른다. 국내 자본주의 전통의 발견은 봉건적인 한국에서 초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발견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서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화폐는 서원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장환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자료에서 확인했다. 서원은 전통적인 마을 교환 경제의 한계를 벗어나 운영 할 수 있었던 소수의 지역 기관 중 하나였고, 초기에 적절한 의미에서 통화 금융 기관이 되었다. 오장환 연구는 서원의 경제적 실존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고리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원이 자본주의의 도래를 조장하는 '고리대 기관'으로 연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원과 농민의 관계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서원의 경제적 역할은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부유한 기관이었고, 창립 이래로 그들은 鄉約을 통해 지역의 마을 경제와 강력하

36) 오장환, 「서원에 대한 약간의 고찰」, 『역사 과학』 6, 1956, p.82.

게 연결되었다. 향약, 지방 곡물 창고와 서원 사이의 연결에 의해 제공된 사회적 유대 관계의 결합은 엄청난 이자율을 청구 할 수 있는 준금융 기관으로서 서원의 출현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서원의 힘은 많은 경우 지방 공직들에 의해 지지 받거나 또는 그들을 위한 우려의 원천 일지라도, 서원의 무한한 권력으로 당국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대대적인 고리대 기관이 되었다. 이 권력의 상징은 인구를 관리하고 부채를 강요하기 위해 서원이 발행한 소위 黑牌³⁷⁾였다. 이것은 그 지방 수령의 수狀보다도 무서운 것이었다.³⁸⁾

그러나 서원의 取利에 의한 농민들의 고통은 또 다른 점에 의해 가려졌다. 서원은 역사의 바퀴를 가속시키지 못했다. 북한 학자들이 묘사한 서원의 가장 큰 실패는 이론적으로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봉건 제도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조성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³⁹⁾ 그렇다면 서원이 자본 축적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한국 역사의 과정이 달라졌을까? 오장환은 한국 역사에서 서원의 역사성과 경제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서원은 고리대에 의하여 또는 농산물을 시장에 내어 놓음으로써 축적한 화폐를 산업 또는 수공업 생산에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서원 경영의 유지비, 토지 구입에 돌렸으며, 서원주들은 철저하게 낡은 봉건 제도의 옹호자들이었으며 그의 대변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봉건 제도의 유지, 서원의 계속적 존재와 아울러 자기들의 그날그날의 부패한 생활의 계속 이외에는 새로운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⁴⁰⁾

37) 한국 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木牌'인 것 같다

38) 오장환, 앞의 논문(1956), p.89.

39) 오장환, 앞의 논문(1956), p.90.

40) 오장환, 앞의 논문(1956), p.89.



〈사진 7〉 소현서원 사당 위패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2018)

IV. 맺음말

초기 북한 자료에 의해 제공된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초기 북한 자료의 평가에 의하면 서원은 착취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부터 문화유산으로서 보호를 받았는데, 특히 개성 송양서원, 해주 소현서원과 평양 근처 용곡서원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이 서원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서원들이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관광지로서 보호를 받았던 지역은 옛날 개성 도시와 유명한 명승 석담구곡 그리고 평양의 금강산인 용악산 문화 보호지역과 그 지역에 존재하는 서원들이다. 다른 지역의 서원들은 관광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1960년대에 편찬된 문화유적편

람에도 포함되지 못하였다.

봉건적 잔재의 상징인 서원에 대한 북한 연구의 의도는 서원을 통해 전수되어 내려 온 지적 유산을 폄하하는 것이다. 북한 학자들과 교사들은 舊사상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을 대체적으로 삼가 하지만, 조선시대 계급투쟁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원의 사회적·역사적 역할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는 서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구는 전통사회의 경제적 맥락 속에 위치한 서원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원의 정신·문화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은 등한시 한다.

특히 "봉건 미신"이라고 치부되는 서원 배향과 예학 기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모지인 20세기 후반 서원 역사 연구에서 북한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 학자들은 봉건 정권의 억압적 초석 중 하나로 서원을 폄하하긴 하지만, 서원이 북한의 전통 사회와 삶에 대한 해석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增補文獻備考』

2. 저서 및 논문

강인구, 이성미 지음, 『북한의 한국학의 연구 성과 분석 -역사, 철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I』,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사 년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7.

김석형, 「량반론」, 『역사 논문집』 3, 1959.

리남산, 「조선 교육사 참고 자료를 읽고」, 『인민 교육』 8, 1958.

리수일, 「중세 중국에서의 서원 교육에 대한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 205, no.1, 2008.

리철, 리기용,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5.

리화선, 『조선 건축사 I』,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문화보존연구소, 『우리나라 역사유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문화유물보존연구소(최규한 편집),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편람』, 평양, 군중문화출판사, 1966.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 『중요유적명승 천연기념물 일람』, 평양, 1956.

박시형, 『조선 중세사 II』, 평양, 국립출판사, 1956.

박종배, 蓮池重代, 「읍지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평양의 학교와 그 운영」, 『교육사학 연구』 27, no.1, 2017.

바친카, 야로슬라프 (Bařinka, Jaroslav), 「Staré konfuciánské ústavy v Koreji (옛날 한국의 서원)」, 『Novy Orient』 23, 1968.

박황식, 「중성 향교의 건축 양식」, 『문화 유산』, 1957.

오장환, 「리조 봉건 시기 사원 경제의 몇가지 고찰」, 『역사 과학』, 1955.

오장환, 『조선 역사 교수 참고서』, 평양, 교육 도서 출판사, 1956.

오장환, 「서원에 대한 약간의 고찰」, 『역사 과학』 6, 1956.

오희복, 『옛 사람 이름 편람』,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만규, 『조선교육사1』, 서울, 을유문화사, 1947.

이만규, 『조선교육사 연구 및 자료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7.

이만규, 『조선교육사』, 동경, 학우서방, 1963.

- 조상순, 『북한의 서원과 사우』, 한국서원연합회 홈페이지, 2012.
http://www.seowonstay.com/bbs/board.php?bo_table=koreanseowon&wr_id=48.(accessed:01March2017).
- 정순우, 「朝鮮時代 開城府 崧陽書院의 性格과 學術活動. 北韓所在 書院 研究를 위한 試論的 論議」, 발표문, 베를린자유대학교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2017년 05월 04일.
- 주성철, 림호성, 김승일, 『장군님과 력사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4.
- 최택선, 허해숙, 『조선문화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North Korean Research on Confucian Academies in the 1950s and 1960s

1st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Freie Universität Berlin)

This article seeks to introduce North Korean research and perceptions of Confucian Academies (Seowon) in the 1950s and 1960s. To understand modern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Confucian Academies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research in this period as it still forms the basic understanding of Confucian Academies in North Korea today. The article also seeks to introduce North Korean resources on Confucian Academies that are difficult to attai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orth Korean view towards Confucian Academies is analyzed by looking at different research fields concerned with Confucian Academies. Even though Confucian Academies were not an important field of research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refore not many publications about the academies were produced, several interesting points present themselves. Most interestingly it becomes clear why three Confucian Academies in North Korea received the status of cultural heritage, while others did not.

Keywords: Confucian Academi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search, Sohyeon Seowon, Yonggok Seowon, Sungyang Seowon

이 논문은 2018년 11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27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

디지털 인문학 관점에서의 서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초보적 연구

전배배(戰蓓蓓)*

-
- I. 序言
 - II. 数字人文学科
 - III. 数字人文发展现状
 - IV. 数字人文技术体系及书院数据库技术构架
 - V. 书院数据库资源与建设计划
 - VI. 其他参考模型与潜在合作伙伴
 - VII. 余论
-

〈국문요약〉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란, 현대의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을 전통적 인문학 연구와 교육에 깊이 응용한 학제적(學際的) 연구영역을 일컫는다.

구미(歐美) 선진국의 다수 대학교에는 이미 디지털 인문학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최근 3년 동안은 하버드대학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센터 ‘중국 인물 전기(傳記)데이터베이스-CBDB’ 사업 팀의 대대적인 선전(宣傳) 덕분에 중국 대륙의 여러 대학교의 인문학부 및 대학원은 물론이고, 특히 역사와 관련 있는 학과에서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런민대학(人民大學) 등 대학기관에서 디지털 인문학 대회가 개최되었고, 2017년 7월에 난징대학(南京大學)과 CBDB 사업 팀이 합작비망록에 서명하고 중국 인물 전기(傳記)데이터베이스를 합작 설립했다.

현재 웨루서원(蔚麓書院)의 ‘중국 서원문헌 정리 및 연구’ 사업은 이미 첫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전국 각 성(省)·시(市) 도서관 및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에 소장된 서원문헌 873건을 등재(登載)했다. 완전 파악된 서원문헌은 348건이고, 그 중 156건에 대한 자료촬영을 완료했다. 표점교감(標點校勘)한

* 湖南大学岳麓书院历史系/ 助理研究员 beibei_zhan@163.com

서원문헌은 66건이고, 초고(草稿)가 완성된 문헌은 55건으로 총 299만 5천 자 규모이다. 서원지(書院誌), 서원 팔고문(八股文), 징신록(徵信錄—공익기금 수지보고서), 장서목록, 학규, 장정(章程), 동사록(同舍錄), 제명기(題名記—참여자 명단) 등 여덟 가지 분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역사적 시기는 송(宋), 원(元), 명(明), 청(淸) 등 사대(四代)에 걸쳐 분포해 있다.

웨루서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앞으로 수집하여 정리할 자료를 토대로 하버드대학 CBDB 사업 팀과 함께 서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목적은 단순히 서원자료의 전산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원 데이터베이스와 (CBDB) 간 연계(連繫)를 촉진하여 검색 연동 및 강화된 데이터 탐색 등을 구현시킴으로써 서원연구분야에 새로운 수단, 방법, 관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이 사업의 초기계획과 전망을 소개하고,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핵심어 : 디지털 인문학, 약록서원(嶽麓書院), 중국 서원문헌, 서원, 서원 데이터베이스

数字人文(Digital Humanities)是一个“将现代计算机和网络技术深入应用于传统的人文研究与教学的新型跨学科研究领域。”欧美发达国家的很多大学已经建立了数字人文研究中心。近三年来，得益于哈佛大学费正清中心“中国人物传记资料库”(CBDB)项目组的大力推广，中国大陆人文院系尤其是历史相关学科开始关注数字人文。2016年北京大学、人民大学等院校机构召开了数字人文大会，2017年7月南京大学与CBDB项目组签订了合作备忘录，合作建设CBDB。

I. 序言

目前，岳麓书院的“中国书院文献整理与研究”项目已经首批普查登记全国各省市图书馆、高校图书馆馆藏书院文献普查登记873条。掌握书院文献348种，其中完成拍摄156种。已点校的书院文献共计66种，已经完成初稿的有55种，299.5万字。内容包括如下8类，书院志、书院课艺、征信录、藏书目录、学规、章程、同舍录、题名记等。历史时段分布从宋元至明清。岳麓书院拟基于已有和未来将要搜集与整理的书院资料，与哈佛大学CBDB项目组联合开发书院数据库。其宗旨不仅仅限于将书院资料的电子化，更在于促进书院数据库与

传记资料库的数据关联, 实现互相检索及更深入的数据挖掘, 希望为书院研究提供新的工具、方法及视角。本文主要介绍该项目的初期规划和展望, 并向与会学者进行意见征询。

“在这个时代, 做历史研究似乎前所未有得容易, 又是前所未有的困难——有人称之为富裕的两难。乐观的学者歌颂未来无限的机会, 悲观的学者洞察个中的陷阱; 皓首穷经的老师抱怨学生不再读书, 困惑迷惘的学生则在一个又一个的资料库中暗自摸索。”¹⁾这段话生动地展现了数字时代人文学者的困惑。2016年的一篇会议综述描写到: “数字人文……受到全球人文学者的瞩目。在(中国)国内, ‘数字人文’的浪潮正在形成”。²⁾

在浪潮中即不能随波逐流又不应该故步自封。因此, 岳麓书院计划因地制宜开发与建设书院数据库, 希望在数字人文的浪潮中把握住风向, 深度探索数字与人文的结合点。本文为书院数据库在数字人文背景下的介绍及初步的构想与计划。首先梳理了数字人文学科产生的理论基础与实际发展状况, 以此来为书院数据库在整个数字人文的发展中进行定位。继而大致分析了书院数据库的技术框架, 并介绍了书院数据库已有资源情况及相应的建设计划。哈佛大学的“中国历代人物传记资料库(CBDB)将会是书院数据库的初始合作伙伴, 双方将致力于共同开发与探索“中国历史研究的网络基础设施”所牵扯到的数据共享接口及其他相关设想。本文中还会提及在CBDB之外, 作为实体机构的书院数据库其他的设计模型及潜在合作伙伴。文章末尾为简短的总结与展望。

1) 陈诗沛、涂丰恩、何浩洋, “数位人文趋势与21世纪的史家记忆工作坊”, 《国史研究通讯》, 2013年第4期。

2) 朱本军、聂华, “跨界与融合全球视野下的数字人文——首届北京‘数字人文论坛’会议综述”, 《大学图书馆学报》, 2016年第5期。

Ⅱ. 数字人文学科

数字人文(Digital Humanities)的前身是人文计算 (Humanities Computing 或 Computing in Humanities)。资深学者苏珊·霍基 (Susan Hockey) 在为《数字人文指南》所撰写的《人文计算的历史》将1949年至2004年(该作品出版年份)人文计算的发展分为四个主要阶段, 1949-1970年代的起始阶段, 人文计算主要致力于语言学研究; 1970-1980年代的联合阶段, “数字人文学者之间”计算机和人文学者(主要是语言学学者)之间进行了联合, 以最优化资源投入最大化研究成果”; 1980年代中期-1990年代中期为“新发展”阶段, “期间个人计算机的出现促使更多的学者通过更加便捷、有效和创新型的方式进入到数字人文领域中”; 而1990年早期开始人文计算进入成熟阶段, 互联网的出现促进了资源共享, “高校出现了数字人文的专业, 艺术领域也出现了相关项目, 数字人文的边界得到了极大的拓展。”³⁾

随着数字人文进入成熟阶段及其边界拓展, 相应而来是许多有争议性的问题^①。数字人文的多元性质使人们在其研究内容、研究目的、人员配置等方面都产生了反思。数字人文的从业者既包括传统意义上的人文学者, 还包括了诸如图书馆员, 计算机学者或者工程师, 网站开发人员及其他相关设计人员等。数字人文的成果也出现了多样化, 不仅仅是传统意义上的论文, 也包括了数据库、档案库、数据平台等等。在这样的前提下, 谁应该是数字人文的主导者? 不同领域的人员的合作模式该是如何?⁴⁾研究成果在哪些方面可以推进学术, 在实践中又如何得到认可?

关于研究内容、目的和成果的讨论还延伸到更高的层次, 从理论的角度来思索数字人文作为一个学科的界定, 及数字技术在人文学科中所应该起到的作

3) 陈静: 历史与争论——

英美“数字人文”发展综述。《文化研究》(第16辑),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年秋。关于数字人文发展史等, 本文大量参考了转载于陈静及徐力恒等创办的微信公众号“零壹Lab”所整理转发之文章, 特此鸣谢。

4) 关于多样化问题的更多讨论可参照上文。

用‘扮演的角色’所处的地位。例如金观涛认为：“判别人文知识的可靠性原则……基于他人经验在研究者心中的可重演性，据此，因数位技术在大量文本分析中的地位直接和判定知识真实性有关，故它在人文研究中将比自然科学和社会科学中更具中心位置。”⁵⁾更加激进的观点则认为：“海量数据，甚至是数据全集或‘完全数据’（指 full data而不是 sampling data）的采用，给人文研究一个从未有过的广阔视野；各类分析挖掘工具的普遍化和低门槛化，使人文研究从过去以资源占有为决定性因素，转变为如今以提出问题的想象力为驱动的‘第四范式’”。⁶⁾当前，数字人文从业者大多认同罗伯托·布萨Roberto Busa所提出的“计算学科的主要作用并不是加速人文学科的进步，而是为人文学科领域研究中长期存在的问题提供新的研究方法，从广度和深度两个维度重构人文研究。”⁷⁾然而在实践中，数字人文作为一个学科而言相对年轻，1999年Willard McCarty讨论了人文计算作为一个独立学科与其他学科的关系，⁸⁾数字人文的学术共同体自此方逐渐清晰，加之数字技术日新月异地发展与演变，前述理论的落实仍然需要时间与耐心，并且在更多具体项目的设计和实现中汲取经验以继续推进。

Ⅲ. 数字人文发展现状

近十多年来，世界上许多发达国家的高校开设了数字人文中心（系），其

5) 金观涛, “数位人文研究的理论基础”, 《数位人文研究与技艺》(台北: 国立台湾大学出版社, 2014), 数位人文研究丛书 (5)。

6) Hey T, Tansley S, Tolle K.
《科学研究的第四范式:数据密集型科学发现》。潘教峰, 张晓林, 译.北京:科学出版社, 2012.(Hey T, Tansley S, Tolle K. The fourth paradigm: data-intensive scientific discovery[M]. Pan Jiaofeng, Zhang Xiaolin, trans. Beijing: Science Press, 2012.)

7) Busa R. The annals of humanities computing: the index Thomisticus [J].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1980, 14(2): 83-90.

8) McCarty W. “Humanities computing as interdiscipline: Is humanities computing an academic discipline?” [C]Paper delivered at IATH, University of Virginia. 5 November 1999.

中较为知名的研究中心“如美国斯坦福大学的计算机辅助人文研究中心和斯坦福人文实验室、MIT的Hyper studio、南加利福尼亚大学的数字人文研究中心、马里兰大学的人文技术研究所、英国伦敦国王学院的人文计算研究中心、日本立命馆大学的京都数字文艺研究中心等。”⁹⁾ 相关学术协会也涌现出来,例如“计算与人文联合会(The Association for Computers in the Humanities, ACH)、欧洲数字人文协会(European Association for Digital Humanities, EADH)、加拿大数字人文协会(Canadian Association for Digital Humanities, CADH)、日本数字人文协会(Japanese Association for Digital Humanities, JADH)等,并联合组建了国际数字人文组织联盟(The Alliance of Digital Humanities Organizations, ADHO)。”¹⁰⁾ 此外,“美国国家人文基金(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在2006年成立了‘数字人文创新项目(the Digital Humanities Initiative)’,2008年更名为‘数字人文办公室(the Office of Digital Humanities)’,为美国的数字人文项目提供资金支持。类似的国家性组织还有英国的联合信息系统委员会(JISC)、加拿大的社会与人文科学研究会(SSHRC)等。”¹¹⁾

华语地区起步较早的台湾大学项洁教授领衔的数位人文的研究,2007年已成立“数位典藏研究发展中心”,2012年改名为“数位人文研究中心”;而台湾政治大学既有金观涛、刘青峰两位教授开创的数字人文计划,也成立了文学院下属、郑文惠教授领导的“数位人文研究中心”。香港的公开大学也在2015年成立了“数码文化与人文学科研究所”,举办相关会议,推动数字人文的学术交流。¹²⁾ 内地高校中武汉大学为先驱,在2011年建立了数字人文研究中心,致力于“数字人文基础理论与方法、数字人文相关技术与标准、数字人文通用软件和平台等方面开展深入研究,并将在全校范围内全力倡导和推动各类数字人文项目与交流。”¹³⁾ 2017年南京大学历史学院宣布成立“数字人文研究中心”。

9) 刘炜,叶鹰.“数字人文的技术体系与理论结构探讨”《中国图书馆学报》2017年第5期

10) 同上。

11) 陈静:“历史与争论——

‘英美数字人文’发展综述’。《文化研究》(第16辑),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3年秋

12) 陈静、徐力恒:“我们为什么需要数字人文”。《社会科学报》第1572期第5版。

13) 见武汉大学信息管理学院网站 <http://sim.whu.edu.cn/xwdt/2016-05-25/1274.html>。

从数字人文项目的角度看，关于中国研究的数字人文项目起步其实远远早于相关研究中心的成立。中国较早的数字人文项目亦是由语言研究发端，例如，1976年武汉大学语言自动处理研究组利用计算机统计老舍《骆驼祥子》字频等。¹⁴⁾此外GIS（地理信息系统）于历史学交叉领域也起步较早，如复旦大学历史地理研究中心与美国哈佛大学东亚系、哈佛燕京学社、澳大利亚格林菲斯大学亚洲空间数据中心、数字化文化地图集行动计划(ECAI)等机构从2001年开始合作，共同建立了一套中国人口地理信息系统。¹⁵⁾

在传统中国研究领域，尤其值得一提的数字人文项目是中国历代人物传记资料库(CBDB)。该项目库创始者是Robert Hartwell教授（郝若贝，1932-1996），他将自己所建立的人物传记资料库遗赠给了哈佛燕京学社，后续开发工作由哈佛大学燕京学社、费正清中国研究中心、台湾中研院历史语言研究所及北京大学中国古代史研究中心合作进行，2007年线上免费开放使用。CBDB收录了七世纪至十九世纪的中国人传记资料共32.8万笔，网站首页有与地理信息数据结合的可视化数据呈现。¹⁶⁾目前CBDB还在继续进行开发，在资料扩充之外，其开发小组还提出了“中国历史研究的网络基础设施”的理念。这个理念号召连接更多的对中国历史研究有用的计算机软件、数据集、人才和合作模式，促进中国历史研究方面数字人文的资源共享和人员交流。¹⁷⁾

岳麓书院目前计划开展书院数据库项目，并且在与CBDB团队接触及商议合作事宜。其建设目标第一是为书院研究提供新的工具、方法及视角，第二是希望能够为“中国历史研究的网络基础设施”做一些打下基础，在更广阔层面上的，对数字人文项目之间的互相合作模式进行探索而有所贡献。

14) 徐力恒：“一个新领域的出现——中国的数字人文研究。”载于微信公众号“零壹Lab”。

15) 刘炜，叶鹰。“数字人文的技术体系与理论结构探讨”。

16) 简介摘自，姚书恒：数字人文：不只让历史更好看，微信公众号“博悟馆”。详见 <https://projects.iq.harvard.edu/chinesecbdb>。

17) 王宏甍、徐力恒、包弼德：“服务于中国历史研究的网络基础设施”。2016年12月的「第七届数位典藏与数位人文国际研讨会」。

IV. 数字人文技术体系及书院数据库技术构架

从宏观来看，数字人文所涉及的技术体系可以如下划分：数字化技术。数据管理技术、数据分析技术、可视化技术、VR/AR

(虚拟现实/增强现实) 技术、机器学习技术 (图1)。¹⁸⁾从流程上看，笼统来讲数字化技术及数据管理技术将人文资料进行处理、储存、整合成可进行数字化操作的数据；在其基础上数据分析技术提供软件应用及统计分析工具等；可视化技术将庞大复杂的数据直观地呈现；VR/AR则更加推进一步，利用历史数据“再现”历史场景；机器学习技术则是在各个层面上推进计算机自动化，以取代人工操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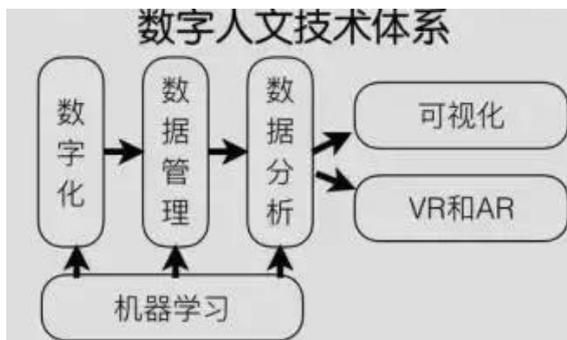


图1 数字人文技术方法体系¹⁹⁾

书院数据库目前构架中基本确定要涉及到的是数字化技术、数据管理技术、数据分析技术及可视化技术。在未来远景计划中，希望能够拓展到VR和AR技术，在一定程度上实现“书院时间机器”，即构造一些虚拟的书院历史场景供研究者和民众观摩使用。机器学习技术目前来说只能在各个层面寻找现有技术中适合的解决方案，而并非设计的重点。在以上所涉及的技术体系之外，书

18) 此功能划分参考刘炜，叶鹰。“数字人文的技术体系与理论结构探讨”。

19) 刘炜，叶鹰。“数字人文的技术体系与理论结构探讨”。

院与CBDB还将关注数据接口技术, 以最大程度上促成数据流通与共享。²⁰⁾在技术层面上, 作为合作伙伴的CBDB在数字化技术(包括中文文献的光学字符识别OCR技术)、数据管理技术(包括数据结构的设计)、数据分析技术(包括GIS地理信息的关联等)及可视化技术各方面都可以提供一定的经验分享。

V. 书院数据库资源与建设计划

目前书院数据库有以下潜在可用的数字化资源: 第一, 约2010年左右湖南大学图书馆开发有《书院文化数据库》。其中收集了“部分书院的原始文献、研究文献, 展示了与书院有关的一些文件图片、视频资料等”, 收录数据共6000余条。²¹⁾该数据库开发较早, 数据收录量相对较小, 但整体来说有借鉴作用, 并且有一定可能性重复使用其数据。第二, 《湖湘文库》出版项目已经完成了全面数据化, 其中书院相关的原始材料与研究文献, 或许可以加以利用。²²⁾第三, 也是此次书院数据库开发的主要资料来源, 即岳麓书院的“中国书院文献整理与研究”项目所提供的资料。目前该项目所掌握的书院文献中, 已点校的共计66种, 已经完成初稿的有55种, 299.5万字。这部分或有电子版本, 但版权问题尚需协调。总而言之, 上述已数字化的资源是否可用、在何种程度上可用、能够如何用都还有待进一步调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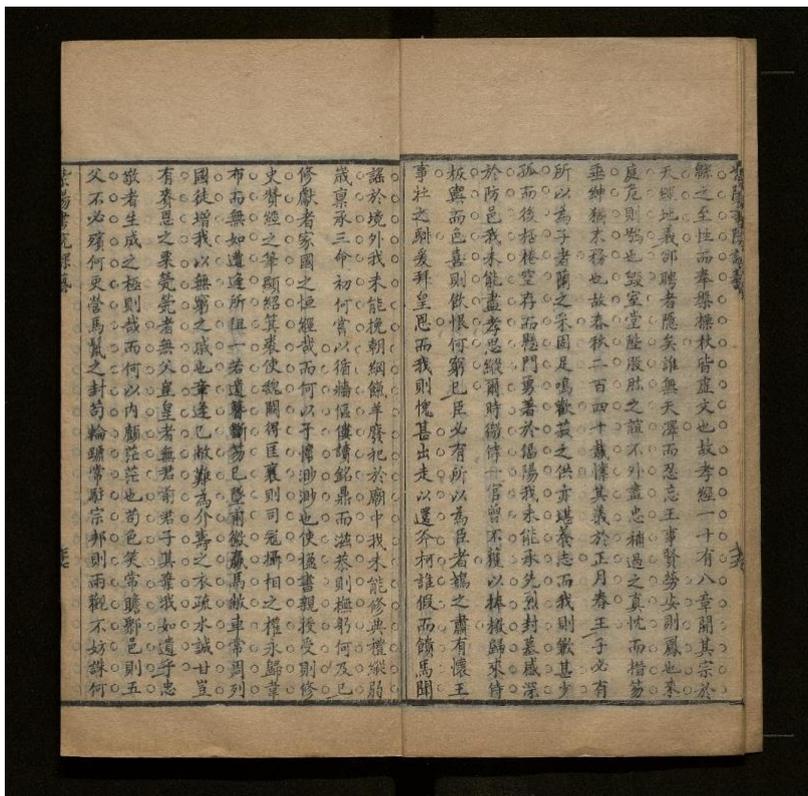
相对而言, 未数字化或者有待完全数字化的资源比较丰富, 亦会是数据库建设的重头戏。前述“中国书院文献整理与研究”项目掌握书院文献348种, 其中完成拍摄156种, 这部分数字图像数据需要进行一定的实验来确定是否可以

20) 数据管理技术也包括API(应用程序编程接口)数据服务技术, 但在书院数据库开发中数据接口技术会更关注接口标准的建立, 更灵活开放对用户友善的界面开发, 以及根据双方数据特质和相关性特定接口的设计。

21) 樊志坚 彭一中, “《书院文化数据库》建设中的知识产权问题与应对策略”, 《高校图书馆工作》2009年第4期。

22) <http://www.huxiangwenku.cn/>

用OCR技术来自动数字化(见图二)。就现有的经验来看,即便可以完成自动识别的部分,可能仍然需要依赖人工的最终审核。因此,可以说资料的数字化将会是数据库开发建设初期的一个重要工作,并且可预见的将会需要一定的人力、物资及相应技术方面的资源。



图二：书院文献的数字图像²³⁾

数据库开发与建设初期的另外一个重要任务是数据结构的设计。此前图书馆所开发《书院文化数据库》将栏目分为“书院一览”“书院人物”“书院文献”“书院文物”“书院百科”。其数据结构包括索引库及全文库,全文库包括

23) 若需转载请先跟本文作者或岳麓书院相关项目组联系。

三大块信息：书院基本信息、书院基本人物信息、书院的各种文献信息。²⁴⁾ 整体而言，该数据库的设计有一定借鉴意义，但是在细度、精度及技术的先进程度上还需要大幅提高。譬如学规、课艺、藏书书目等各种书院文献所承载的不同信息完全没有体现及区分，譬如院址并不能够直接输出地理信息坐标，更遑论各类信息之间关系的呈现。再者，该数据库主要提供的是全文检索功能及浏览功能，缺乏数字人文所诉求的数据分析功能。

目前对书院数据库的构想为，以文献全文数字化为基础的全文库及一个至多个可呈现数据关系、便于数据分析的关系型数据库。全文库与关系型数据之间的接口及互相调用亦是设计的重点。首先将着手设计与开发的关系型数据库，参照CBDB的数据结构，与CBDB以人物为中心、围绕人物信息建表相仿，书院数据库将以书院为中心、围绕书院信息建表。²⁵⁾ 值得注意的是，人物的空间流动性大，而一生时间较短。相比之下书院空间位置稳定，但时间跨度可能极长，甚至可能会有短期兴废。进一步而言，可以把书院数据库看作是机构数据库的一个模型，其设计需要辨清其相关信息及信息之间的关联。此外，书院和人的关系也是需要更好处理的一部分，书院对人基本肯定是一对多的关系，而人对书院也有可能是一对多。书院如何成为人的集合，而人在书院间如何流动，通过人不同书院之间建立了怎样的关系。数据设计期望能够为使用者提供回答这些问题的一些方法和手段。其他相关信息还包括“书籍”、“建筑”、“规制”、“礼祭”、“学术”、“财务”等等。预计在书院数据库开发的前两到三年内，数字化、数据结构初步设计与实现、一定程度上与CBDB接口的尝试将会是工作重点，辅助以不同环节下可视化技术的引入以展示及验收阶段性开发成果。换言之，在两到三年内建设的主要目标为，完成一定体量的全文库，在初步设计的数据结构环境下进行相关数据录入，以及在此基础上与CBDB部分或者全部数据双向共享，包括由人物信息调用书院信息（CBDB调用书院数据库接口）及书院信息调用人物信息（书院数据库调用CBDB接口）。

24) 何平、郑章飞，“书院文献的类分标准及书院文化数据库的构建与实现”，《湖南大学学报》，2010年第1期。

VI. 其他参考模型与潜在合作伙伴

除了CBDB以外, 鉴于书院数据库的特性, 还考虑参考一些基于实体建筑物为中心的“数字人文”项目, 在笔者已知的项目中, 有两个比较明确的参考对象。其一是香港中文大学黎志添教授及其道教文化研究中心团队所建设的“道教数位博物馆”。该项目2015年第一阶段的成果为一个完整的广州道教庙宇的数据库目录, 并将这些资料录入到电子档案, 同时利用地理信息系统(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建立一个合适的展现平台和管理系统, 用于维护、整理、展现和分析相关庙宇的空间和历史特征。²⁵⁾该数据库以庙宇为中心, 将历史文献、建筑、神像、碑文、地方志、道士、省县市档案馆档案、历史地图和科仪文本的资料整合, 同时利用Web-GIS系统使得用户可以方便地进行空间定位。该系统所利用的GIS系统、资料整合方式及可视化呈现方式都非常值得借鉴。在长远看来, 道教庙宇与儒教书院之间的人员流动等亦是值得探索的问题, 在技术上具体体现为数据共享接口的设计与开发。

另外一个值得借鉴的项目是威尼斯国家档案馆和威尼斯大学联合开发的“威尼斯时间机器项目”。²⁶⁾该项目期望利用威尼斯丰富的历史档案“建设一个关于威尼斯千年演变的多维模型”, 在技术方面其致力于形成“从历史数据到计算机可视化的透明过程”, 也就是说希望能够实现从历史档案到历史场景重现的整套技术。²⁷⁾从其网站信息来看, 该项目目前还处在相对基础的阶段, 主要还在数字化及使数据结构化。在技术方面, 该项目在包括文字识别、文本处理及数据结构化的过程中在很大程度上自主开发相关的智能算法, 但因为语言文字不同, 即使其会公开技术, 直接应用的可能性很小。但是“时间机器”所提出的从“历史文献到历史场景复原”的理念是很有启发性的。对于书院数据库而言, 并不可能追求所有书院在所有时段上的场景复原, 对于在某些特殊时期或历史

25) <http://dao.crs.cuhk.edu.hk/digitalmuseum/CH/index.html>

26) <https://vtm.epfl.ch/>

27) <https://vtm.epfl.ch/page-109836-en.html>

事件中的某些书院在一定程度上重现其场景，理应有一定可行性。“书院时间机器”这样的尝试在学术及科普教育上都会有一定的意义，值得被设置为一个远景目标。

VII. 余论

西方世界著名的学者Linda Walton(万安玲)教授与笔者分享过她自己在数字人文方面的小尝试。她利用Microsoft的Excel软件记录了数百笔书院信息以便分析使用。万安玲教授慷慨地将该数据提供给了CBDB。然而非常遗憾的是，她因为不太会使用CBDB的缘故反而不能很好的利用整合后的数据。万安玲教授的例子充分体现了数字化后以人为中心和以书院为中心的研究范式之间可能产生藩篱的情况。书院数据库与CBDB的接口不仅旨在打破这些藩篱，而且还希望能够通过数据接口，让以人为中心的研究范式与以书院为中心的研究范式在更广阔的范围内进行对话。比较浅显的例子是，多对多的关系，即士人群体之间，和多个书院之间的流动关系，这样的研究对于单个历史学家来说是非常耗时费力的，但对适当的数据接口设计而言，则会是非常快捷和方便的。但数字人文的目的和潜力不仅仅在于加速已有的研究方法，更在于利用数据进行更深层次的挖掘。书院数据库将文献、地理、人物、建筑、礼仪、财务等等传统研究方法很难面面俱到的多方位信息整合在一起，非常可能激发新的研究问题、产生新的研究范式等等。因此，虽然可以预见在开发与建设中种种的困难与挑战，我们相信一定会在其中获得机遇与提升，期待能够为书院研究提供新的工具、方法及视野。

<Abstract>

The preliminary study about under the vision of Digital Humanities data base development

Zhan, Beibei

Digital Humanities is a program that combine with Modern computer&Internet technology by applying traditional humanities researching&teaching at new style interdisciplinary researching area. Many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 American has establishes Digital Humanities researching centre. In recent 3 years benefit from the centre of JOHN KING FAIRBANK(CBDB) in Harvard University's popularized, The college of humanities especially for major of history had focused on Digital Humanities in Mainland of China. In 2016 Peking University & Renmin University of China etc. Convene Digital Humanities meeting, In 2017 at Nanjing University sign MOU with CBDB prepare to build CBDB program.

The Yuelu Academy's program of Chinese Academy literature rearrangement & research first batch has been processed by each provinces & municipalities and universities libraries at now. And the general survey of that had registered 873 items that included 348 items of Academy literature and it's about 156 items had finished shooting film. 66 items has been finished punctuation collating, 55types of first draft has been completed and it's about 2.995million Chinese characters.

8 types is included about Academy's chronicles;Academy's art;Donor

List;Academy's catalogues; Academy's Rules;regulations;register of alumni; superscription etc. It's from the Song & Yuan Dynasties to Ming & Qing Dynasties. Yuelu Academy is prepare to combine with Harvard University CBDB for developing Academy data base according to existing and to be explored Academy's data. It's not only aim at Academy's data electronization but also prompt the relevance of Academy's data and biographical material that can realize mutual retrieval and data processing deeply.

And it' hope to provide new tools, methods and research perspectives. This paper mainly introduces the early stages of project planning and vision, and to scholars for comment.

Key words: Digital Humanities, Yuelu Academy, Chinese Academy literature, Seowon, Seowon database

이 논문은 2018년 12월 3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

부록

경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격

I. 조선후기 경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원사 건립

현재의 경상북도 경산시는 조선시대 경산현, 하양현, 자인현 등 세 고을이 일제강점기 이래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통합된 곳이다. 오늘날에도 경산향교, 하양향교, 자인향교가 남아있어서 당시 세 개의 현이 있었음을 대변한다.¹⁾ 조선시대 경산·하양·자인현은 小邑으로서 인접한 대구부, 경주부, 영천군, 청도군, 밀양부 등에 비하여 사족이 번성하지 못하였다. 실제 縣令이 파견되었던 경산현이 읍세가 가장 컸으며, 하양과 자인은 비슷한 규모였다. 특히 자인현은 1637년(인조 15) 이전까지 경주부의 속현으로 있었으며, 하양현은 그러한 자인현보다 읍세가 적었기에 조선 건국 초에 경주부 소속 安心所를 하양에 편입시켜 읍세를 조정해야 했다.

한편 조선전기 이래로 경산·하양현의 토성은 강력한 族勢를 갖지 못한 가운데 이주해온 성씨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 이주 사족은 임진왜란 당시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통해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17세기 초에 대구부와 통합한 이후 새로 이주해온 대구·성주·청도 등지의 사족들이 합류하면서 이들 타관 사족들의 주도하에 전후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전하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이들 사족들이 당시 여타 고을에서와 마찬가지로 鄉案을 복구하고, 소실된 향청과 향교, 서원 등을 재건하는 한편, 상·하민이 참여하는 향약·동약 등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인현의 경우 오랫동안 경주의 속읍으로 존재하면서 기존 토성들의 사족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개 사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향리층을 구성하다가 주읍인 경주부의 토성에게 흡수되거나 후세에 改貫하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남읍지』에 나오는 최·이·박·김·전·안·하·류·배·백·변씨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 복원된 자인현은 경산·하양현과 마찬가지로 이주해온 타 지역 성씨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1) 이하 내용은 이수환, 「조선시대의 경산」, 「경산의 역사」, 경산문화원, 2015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처럼 경산·자인·하양현에서는 임란을 겪으면서 의병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크게 신장시키거나, 임란이후 쇠잔해진 읍세로 인해 병합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에서 이주해온 성씨들이 향론을 주도해 나갔다. 실제 1933년에 간행된 『慶山郡誌』²⁾를 보면 대구·청도·밀양·영천·의성·경주 등지에서의 이주가 활발하였다. 그 결과 경산에는 78개, 자인에는 55개, 하양에는 31개로 성씨가 더욱 늘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경산과 자인에 비하여 하양에 이주 성씨의 분포가 적은 것은 조선전기 이래로 하양의 토성이 강성하여 이주성씨들이 정착이 어려웠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읍세의 차이에 연유하는 바도 있지만 조선전기에는 하양과 경산의 읍세가 비슷했고, 임란 당시에는 경산을 하양에 합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에서도 하양의 읍세가 경산보다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대로 조선후기 경산·자인현의 인구수가 하양현보다 많은 것은 기존 토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이거해온 성씨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타성이 이주하여 정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 의해 토지가 개발되면서 관개 시설도 더욱 확충되었고, 농민들의 이주도 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하양에서는 토성인 河陽許氏들이 여말이래로 현달하였고, 임란 당시에도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통해 재지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혼란 속에서도 관내의 여타 사족들과 연대 내지 견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세 고을의 『읍지』 인물조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嶠南誌』 인물조³⁾를 통하여 경산·자인·하양현의 문·무과 급제 및 생원·진사

2) 이종현 편, 『경산군지』(전3권), 옥천서당, 1933.(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 『교남지』(1936)에 수록된 인물들의 선별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임란이전과 17세기 초·중반에 이거(移居)해온 가문들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면, 『경산군지』(1933)에는 더욱 많은 가문의 인사들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경산·자인·하양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17세기 이래로 여러 성씨들이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재지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과 무관하더라도 그들의 현조(顯祖)를 지역 인사로 편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입격자와 음사·충의·문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남지』 소재 인물 현황

구분	文科	武科	生員·進士	蔭仕	忠義	文士
경산현	朴咳[密陽]·鄭瑛[草溪]·陳瓘[珍山]·朴光佑[密陽]	鄭義耘(東萊)·朴光迪(順天)·徐斗榦(達城)	徐湜(達城)·李陽晉(仁川)·李飛漢(慶州)·徐炳斌(達城)·徐思選(遺逸薦)	鄭惟燾(清州)	鄭東範(清州)·英祖戊申倡義	韓珣(清州, 遺逸薦)·韓景祚·徐丙奎·朴希蕃(密陽)·韓流金·李鳴宇(仁川)·呂尙齊(星山)·朴性循·徐日復·呂載觀·朴準璟·李鍾澤·呂義燮·呂師仁
자인현	-	李秘秀(慶州)·崔善弼(慶州)·河東運·朴蕃·金顯五(金海)	李壽東(仁川)	崔公衡(永川)·李雲栽(慶州)·張炳斗(仁同)	崔文炳(永川)·崔仁壽·崔峻立·崔應壽·崔東立	金應鳴(慶州)·李興培(慶州)·尹相默(坡平)·李光後(星州)·李昌後(星州)
하양현	許稠(고려, 河陽)·許誠·許誠·許輔·許亮	金是聲(淸道)·金是鳴(淸道)·金駿文(淸道)	李榦(永川)·倡義·金翊東(淸道)·金顯周(金海)·黃在瓚	許倜·黃赫禎(長水)·黃憲·許{勉/心}·許以淸·黃補玄	許翽·許慥·申海·黃慶霖·金鑣(金海)·朴鵬·許應吉	許忠·金四行(淸道)·金四聰·都永昌(星州)·鄭應智(東萊)·李世德(永川)·李雲祥(永川)·蔡必儉(仁川)·黃昌錄·黃萬祚·金斗一(慶州)·金履德(金海)

위 <표>를 보면 경산현에서 문과 4명, 무과 3명, 생원·진사 5명, 음사 1명, 충의 1명, 문사 14명 등 28명을, 자인현에서는 문과는 없지만 무과 5명, 생원·진사 1명, 음사 3명, 충의 5명, 문사 5명 등 19명을, 하양현에서는 문과 5명

[허조 : 고려 공민왕대 등과], 무과 3명, 생원·진사 4명, 음사 6명, 충의 7명, 문사 12명 등 37명을 배출하였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양이 경산·자인에 비하여 많은 인사가 배출되었다. 물론, 문사와 문과·생원·진사 등만 보면 경산현이 하양·자인에 비하여 문풍이 振作되었으며, 임란·병자호란 당시에는 자인과 하양현에서 많은 의병장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지역별·성씨별로 보면 경산현에서는 진산진씨·밀양박씨·동래정씨·순천박씨·달성서씨·인천이씨·경주이씨·청주정씨·청주한씨·성산여씨 등 10개 가문이, 자인현에서는 경주이씨·김해김씨·인천이씨·영천최씨·경주김씨·성주이씨·파평윤씨·인동장씨 등 8개 가문이, 하양현에서는 하양허씨·청도김씨·영천이씨·김해김씨·장수황씨·동래정씨·성주도씨·인천채씨·경주김씨 등 9개 가문이 있다. 이들 성씨가 경산·자인·하양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중 하양허씨가 유일한 토성이자 12명의 인사를 배출하여서 세 고을의 성씨들 중 가장 번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790년(정조 14) 허조를 배향하는 琴湖書院이 세 고을 가운데 유일한 賜額서원이 되면서 하양허씨는 하양현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경산·자인·하양현의 향촌사회는 이들 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여타 성씨들이 이주 정착하여 성장하면서 기득권을 두고 대립 내지 협력하였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경산현의 대표적인 성씨들을 『영남읍지』를 통해 살펴보면 35개의 가문이 확인된다.⁴⁾ 여기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산현 대표 인물들이 속한 10개 가문도 포함되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25개 성씨가 주요 성씨로 소개된 것이다. 반면에 조선전기 이래의 來姓이었던 朴鄭盧氏는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 다른 유력성씨로 개관하거나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성씨들의 유입도 많았지만, 기존 성씨의 소멸과 병합이

4) 土姓 : 全(金白), 歸化姓 : 唐(徐劉), 日本(綠珠), 來姓[今無]·朴(鄭魯) / 鄭(草溪·淸州·東萊), 蔣(牙山), 韓(淸州), 徐(達城), 趙(豐壤), 李(星州·完山·廣州·江陽), 朴(密陽), 權(安東), 曹(昌寧), 承(南海), 郭(苞山), 盧(光州·長淵), 蔡(仁川), 孫(密陽), 崔(興海), 俞(杞溪), 玄(八莒), 崔(永陽), 裊(達城), 呂(咸陽·星山), 白(水原), 楊(中和), 都(八莒), 金(淸道·盆城), 林(沃溝), 殷(幸州), 成(昌寧)

진행되었다. 이러한 소멸과 병합은 18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변화가 심화되면서 사족의 분화와 몰락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족의 분화는 그들 간의 결속을 약화시켜서 18세기 중반이래로는 향촌사회에서의 기득권을 둘러싼 사족 및 각 신분계층과의 분쟁이 확대되어 갔다. 이에 혈연을 중심으로 한 문중구성원 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상[顯祖]의 顯揚 사업이 이어졌다. 18세기 중반이래로 문중 서원과 사우 및 齋舍, 樓亭의 건립과 족보와 문집·실기의 간행이 증가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일례로 『교남지』, 『경상도읍지』, 『영남읍지』, 『조두록』, 『증보문헌비고』등에서 확인되는 서원과 사우는 아래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경산·자인·하양현 서원·사우

지명	번호	원사명	건립	사액	제향인	비고
경산	1	孤山書院	1573 (선조6)		李滉 鄭經世	縣監 尹希廉 始創 書齋 / 1694(숙종20)建(增, 可攷-進士 韓弘翊 等 設院), 孤山名退溪 命名, 1868년(고종5)휘철, 현 고산서당
	2	玉川書院	1604 (선조37)		徐思選	東臯精舍, 1868년(고종5)휘철, 현 옥천서당
	3	松湖書院	1816 (순조16)		呂大翊	後建書堂, 1868년(고종5)휘철
	4	尙德祠	1613 (광해군5)		李元龜	前縣令 李元龜 生祠 1763(영조39) 휘철
자인	1	觀瀾書院	1659 (효종10)		李彥迪	1660(현종1)建(增, 可攷, 叢書), 11月 奉安 位版, 1868년(고종5)휘철, 현 관란서원
	2	龍溪書院	1709 (숙종35)		崔文炳 李光後 李昌後 金應鳴	증현사 상현사 승후, 1868년(고종5)휘철, 현 용계서원

지명	번호	원사명	건립	사액	제향인	비고
	3	忠賢祠	1700 (숙종26)		崔文炳	
	4	尙德祠	1700 (숙종26)		李光後 李昌後 金應鳴	김응명 추향
	5	鄉賢祠	1710 (숙종36)		李光後 李昌後 金應鳴	
	6	早谷祠	1794 (정조18)		安祐 安止	1868년(고종5)휘철, 현 조곡서원
하양	1	琴湖書院	1684 (숙종10)	1790 (정조14)	許稠	1871년(고종 8)휘철, 현 금락라부호리 금호서원
	2	南湖書院	1798 (정조22)		金是聲	1868년(고종5)휘철, 현 남호서당
	3	臨湖祠	1823 (순조23)		李榦	1868년(고종5)휘철, 현 임호서원

위 <표>를 보면 경산·자인·하양현은 여타 고을에 비하여 서원이나 사우의 수가 많지 않았다. 13개 원사에 제향된 인물들은 儒賢과 관료, 의병장 등으로 대별된다. 서원은 학행이 있는 인물과 관료, 사우에는 의병장이 제향되었다. 제향인물 중 경산지역 출신은 사우에 제향된 의병장들만 확인된다. 세 고을에 건립된 7개의 서원 가운데 처음부터 서원으로 건립된 것은 금호서원과 관란서원 뿐이며, 나머지 서원은 서재, 정사, 사우로 건립되었다가 후에 陞院한 사례이다.

이들 서원은 자인의 관란서원, 하양 금호서원, 경산 고산서원 순서로 건립되었다. 상대적으로 사족의 수가 많고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이 빨랐다. 실제 자인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이 세 고을 가운데 가장 활발했으며, 이후 復縣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족들의 결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자인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유현이 없었기에 主縣이었던 경주의 대표적 先賢인 이언적을 제향하는 관란서원을 1659년(효종 10)

건립하였다. 하양과 경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특히 하양은 토성인 許氏가 조선 건국 이래로 하양현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1684년(숙종 10) 하양허씨의 顯祖인 許稠를 제향하는 금호서원을 공의에 의거하여 건립할 수 있었다. 허조는 하양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세종대 영의정을 지낸 名臣으로서 명성이 높았기에 그의 貫鄉인 하양을 대표하고, 사표가 될 만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서원에 제향되었던 것이다. 실제 그러한 연유로 1790년(정조 14)에는 경산·하양·자인현 가운데 유일한 사액서원이 되었다.

경산의 고산서원은 명종대의 현감 윤희렴이 퇴계 이황에게 '孤山'이라는 齋號와 '求道'라는 門號를 친필로 받아서 건립하였던, 고산서재가 시원이다. 이후 1605년(선조 38) 중건 과정에서 대구부사 정경세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그 결과 1690년(숙종 16) 고산서재를 중건하면서, 규모를 확충하여 고산서원으로 승원 하였고, 이황과 정경세를 제향 하였다.⁵⁾

이후 18세기 이래로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가문의 현조를 제향하는 문중원사의 건립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도 사족의 활동이 많았던 자인현에서 문중원사의 건립이 가장 활발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최문병을 제향하는 충현사와 이광후·이창후·김응명을 제향하는 상덕사가 1700년(숙종 26) 연이어 건립되었다. 이후 1709년(숙종 35)에는 용계서원을 건립하여 충현사와 상덕사에 제향된 인물들을 숭후하였다.

서원에 제향하기 위해서는 제향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일향의 공론이 필요하였기에 합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듬해인 1710년(숙종 36)에 향현사를 건립하여 이광후·이창후·김응명의 위패를 이전하였고, 용계서원은 최문병을 獨享하였다. 이 향현사가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현재의 南川書院이다. 그 이후에는 조정의 서원 신설과 첩설 등에 대한 금령이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원사 건립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실제 경산현령 이원구를 제향하던

5) 고산서원은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편입되었으며, 대원군 휘철이후 복원한 고산서당은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1984.7.25.]로 지정되어 있다.

생사당이 1763년(영조 39) 훼손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한 후 정국이 변화하면서 원사 건립이 재개되었다.

1786년(정조 10) 서사선을 제향하는 玉川書院이 건립되었다. 서사선은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서 경산으로 이주해온 이래로 학행으로 명성이 높았던 경산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옥천서원은 1604년(선조 37) 서사선이 건립하고 강화하였던 東臯精舍를 증건한 것이다. 이후 1794년(정조 18)에는 자인의 탐진안씨들이 안우와 안지를 제향하기 위해 조곡사를 건립하였으며, 1798년(정조 22)에는 통제사 김시성을 제향하기 위해 하양의 청도김씨들이 남호사를 건립하였다. 1816년(순조 16)에는 영천의 훈수 정만양·호수 정규양 형제의 문인으로서 학문이 뛰어났는데, 영조대 효자로 천거되어 공조참의에 증직된 인물인 여대익을 제향하는 송호사가 건립되었다. 1823년(순조 23)에는 永川李氏들을 중심으로 임란 당시 군공을 세웠던 이간을 제향하는 임호사가 건립되었다. 이 중 남호사, 송호사는 이후 서원으로 승원 되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문중원사 건립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조가 없거나 물력이 부족하여 원사 건립이 어려운 가문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문을 현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중 내지 가문별 우위 경쟁은 19세기 들어와서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효자·효녀·효부·열녀·열부 등에게 旌闔, 表彰 등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았다. 경산·자인·하양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서원·사우를 건립하였던 가문뿐만 아니라 그 외 가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다음은 『교남지』에 수록된 효자·열녀·효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교남지』소재 효자·열녀 등 현황

구분	효자	효부	열녀
경산현	孫日宣(世宗 旌閭)·河漢京(宣祖 旌閭)·朴弘祿(宣祖 旌閭)·呂大翊(英祖 復戶)·徐道璣(達城)·鄭泰周(東萊)·蔣海鵬(牙山)·石士萬(忠州)·鄭鎮圭(草溪 褒題)·鄭之彦(淸州, 高宗 旌閭)·鄭東弼(鄉, 褒彰)·呂洪桂·石嶽楨·崔漢龜·崔漢鳳(慶州)·李炳奎(純祖 復戶)·呂弼周·千洛鼎(潁陽)·石熙翼	呂洪睦 妻 東萊鄭氏(褒狀)·千潤根 妻 原州邊氏(褒賞)·石仁壽 妻 昌原黃氏(褒題)	德之(私婢, 宣祖命旌) 守玉(私婢, 顯宗命旌) 千洛信 妻 慶州金氏
자인현	李承曾(慶州, 宣祖 旌閭)·徐濂(肅宗 贈禁府都事)·朴正佑(肅宗 旌閭)·金景復(復戶)·姜遇昌·宋相運(褒狀)·尹在仁	成昌義 妻 裴氏(景宗 復戶)·李相來 妻 東萊鄭氏(文褒)	梁氏(復戶)
하양현	尹仁厚(碑)·許仲堅(旌閭)·申休(旌閭)·裴爾仁(星山,旌閭)·金鳴振(義城)·許壕(復戶, 戊申亂義兵將)·鄭斗弘·金成九·裴鳳祥(星山, 參奉, 影閣)		金鳴振 子婦金氏 趙召史(復戶)

이를 보면 서원·사우를 건립하였던 가문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가문들이 확인된다. 이들 가문에서 배출된 효자·효부·열녀 등은 국가에서 공인하여 정려나 復戶의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유림에서 자체적으로 褒狀·褒題·文褒 등의 방법으로 그 업적을 기리는 경우가 많다.

즉 18세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국가 주도의 포상이 내려졌으나, 19세기 들어 유림들 주도의 포상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들어 효자·효부·열녀 등에 대한 정려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에서의 포상이 사실상 중지된 까닭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요구했던 사례들이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러한 현양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활성화되면서, 서원과 사우, 재실, 정자, 정려·효자비각 등의 건립이 증가하였다.⁶⁾

6) 『경산의 儒敎 유적』(경산문화원, 2018)에 의거하면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현전하는 서원·사우·재실·효자각 등은 41개로 확인된다.

Ⅱ. 현재의 경산 소재 서원 개관

오늘날 경산시에는 서원과 사우뿐만 아니라 재실과 정자 등이 일제강점기 이래로 많이 건립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서원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4〉 경산시 소재 서원 현황 (2018.12 현재)

번호	서원명	건립	중건	제향인	비고
1	금호서원	1684 (숙종10)	1923	許稠 許詡 許槩	
2	금호서원	1684 (숙종10)	1913	許稠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449호(2003.10.27)
3	백곡서원	1937	·	허응길	1977년 승원함
4	임호서원	1823 (순조23)	·	이간·이안방	1934년 임호서당 건립, 1977년 서원 승원
5	도천서원	1946	·	이알평·이천·이제현· 이지회·이항복	경주이씨 문중 건립
6	울산서원	1977	·	박언침·박현·박눌생· 박경신·박운달·박재호	밀양박씨 문중에서 건립함
7	원계서원	1927	·	송응현·송걸	사림의 공의로 건립함.
8	용계서원	1709	1979	최문병	1979년 복원함
9	관란서원	1659	1901	이언적	1901년 관란서당 중건, 2004년 사당 복원
10	남천서원	1700	1927	김응명	1927년 남천서당 중건, 2002년 승원
11	용산서원	1635	1903	최팔개·최팔원	1903년 용산서당, 1987년 승원
12	조곡서원	1794	1869	안우·안지	1869년 상경재 재건, 1900 년 충현사 건립, 1950년 서 원 재건
13	구계서원	1696	1896	우탁	1896년 독역재 중건, 1974 년 영남대 이진, 2000년 모 현사 등을 갖추고 복원함.

7) 경산시 유교 유적에 관해서는 『경산의 儒教 유적』(경산문화원, 2018)을 참조 바람.

1. 금락리 금호서원(琴樂里 琴湖書院)

- 소재지 :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4길 25
- 건립연도 : 1684년(숙종 10)
- 제향인물 : 許稠, 許珩, 許槩
- 향사 : (음)3월 상정일
- 연혁 : 금락리 금호서원은 1684년(숙종 10) 敬庵 許稠를 제향하기 위해 금락리에 건립되었다. 1724년(경종 4) 西沙里로 이건하였으며, 蔡思玄 등이 상소를 올려 1790년(정조 14) 사액을 받았다. 경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의해 1871년(고종 8) 철폐되고, 그 자리에 유허비와 비각을 세웠다. 1923년 4월 12일 聚德祠, 1932년 4월 19일 外三門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허조를 독향 하였으나, 복원 후 허후와 許槩를 함께 제향하고 있다. 현재 하양읍에는 부호리와 금락리 두 곳에 금호서원이 건립되어 있는데, 서원이 철폐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각 각 복원한 것이다.

2. 부호리 금호서원(釜湖里 琴湖書院)

- 소재지 :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2길 32-1
- 건립연도 : 1684년(숙종 10)
- 제향인물 : 許稠
- 향사 : 2월 중정
- 문화재지정 :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449호(2003.10.27)
- 연혁 : 부호리 금호서원은 1684년(숙종 10) 허조를 재향하기 위해 금락리에 건립되었다. 1724년(경종 4) 서사리로 이건하였으며, 蔡思현 등이 상소를 올려 1790년(정조 14) 사액을 받았다. 하양현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의해 1871년(고종 8) 철폐되고, 그 자리에 유허비

와 비각을 세웠다. 1923년 부호리에 景德祠와 修教堂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하양읍에는 부호리와 금락리 두 곳에 금호서원이 건립되어 있는데, 서원이 철폐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각 각 복원한 것이다. 부호리 금호서원은 2003년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매년 2월 중정에 향사를 지낸다. 부호리 금호서원 주변에는 허조와 허후 부자의 충렬을 기리는 “許瑠許槩父子旌忠閣”[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0호]이 세워져 있다.

3. 백곡서원(栢谷書院)

- 소재지 : 경산시 하양읍 대곡로 543-4
- 건립연도 : 1937년
- 제향인물 : 許應吉
- 향사 : 음력 4월 초정
- 연혁 : 백곡서원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허응길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37년 曹圭喆이 쓴 「希聖堂記」에 따르면 하양 대곡리는 하양 허씨 세거지로 선조 연간 현풍현감을 지낸 허응길을 위해 그의 6~7세손들이 세운 희성당에서 유래한다. 1937년 12세손 許文烈이 새롭게 중수하였다. 1977년 유림들의 공의로 백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음력 4월 초정에 향사를 지낸다.

4. 임호서원(臨湖書院)

- 소재지 : 경산시 하양읍 탐소길 28-1
- 건립연도 : 1823년(순조 23)
- 제향인물 : 李翰, 李安邦
- 향사 : 음력 3월 15일

□ 연혁 : 임호서원은 1823년(순조 23) 지역 유림들의 공의로 李榘을 추모하기 위해 하양 馬屹里에 세운 臨湖祠에서 유래한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자, 유림들이 뜻을 모아 1919년 임호사터에 유허비를 세우고, 1934년 塔洞에 臨湖書堂을 건립하였다. 1977년 임호서당을 강당으로 하고, 사당을 지어 임호서원으로 복원하였다. 『永川李氏 遺蹟總覽』에 따르면 이때 이안방을 추향하였다고 한다. 매년 음력 3월 15일 향사를 지낸다.

5. 도천서원(道天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진량읍 진성로 77
- 건립연도 : 1946년
- 제향인물 : 李謁平, 李菡, 李齊賢, 李之會, 李恒福
- 향사 : 음력 3월 상정일
- 연혁 : 도천서원은 이알평을 주향으로 하고 이천, 이제현, 이지회, 이항복을 배향하기 위해 1946년 후손 李章熙를 중심으로 경주이씨 문중에서 건립하였다. 道天山 아래 서원을 건립하여 이름을 도천서원이라 하였으며 1960년 9월 9일 이장희가 쓴 「道天書院記」가 있다. 2000년에 후학 金槬이 사당인 景德祠의 상량문을 지었다.

6. 울산서원(栗山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진량읍 금박로 549
- 건립연도 : 1977년
- 제향인물 : 朴彦沈, 朴鉉, 朴訥生, 朴景愼, 朴雲達, 朴在鎬
- 향사 : 5월 15일, 10월 3일
- 연혁 : 울산서원은 예전 仁山縣 到天山 동쪽에 있던 작은 정자를 多文

리로 옮겨 새로 창건한 밀양박씨 서원이다. 197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7년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그해 7월 茲仁鄉會 및 그 해 10월 2일 경북 유림도회의 결의로 1977년 10월 3일 창건되었다.

7. 원계서원(遠溪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와촌면 계전길 95-10
- 건립연도 : 1927년
- 제향인물 : 宋應賢, 宋傑
- 연혁 : 원계서원은 골새마을 뒤쪽의 산자락에 동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 2등에 임록된 양오당 송응현과 그의 아들인 양곡 송걸을 추모하기 위해 1927년에 사림의 공의에 따라 건립되었다.

8. 용계서원(龍溪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자인면 원당길12길 20-1
- 건립연도 : 1709년(숙종 35)
- 제향인물 : 崔文炳
- 향사 : 음력 3월 15일
- 연혁 : 용계서원은 임진왜란 때 자인현에서 활약한 의병장 省齋 崔文炳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忠賢祠에서 유래한다. 충현사의 내력은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인현읍지』(1832), 『증보문헌비고』, 『교남지』 등의 자료에는 1700년(숙종 26) 건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연려실기술』, 『東國院宇錄』, 『書院誌叢書』 등의 자료에는 己丑年만 표기되어 있다. 셋째, 『省齋先生實紀』에 수록된 「忠賢祠重建記文」의 기록으로 1710년(숙종 36)[경인] 원당리에 사당을 영축하여, 1712년(숙종 38)

[임진] 묘당을 완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료의 소략으로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나 위의 기록으로 보아 충현사는 숙종 연간 지역 유림들의 공의로 건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의 역사는 「충현사중건기문」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사당으로 존속하던 충현사는 1786년(정조 10) 조정의 명령으로 용계서원으로 승격되었으나,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1978~1979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복원되었다.

9. 관란서원(觀瀾書院)

□ 소재지 : 경상시 용성면 서원천로 268-21

□ 건립연도 : 1659년(효종 10)

□ 제향인물 : 李彦迪

□ 향사 : 음력 9월 9일

□ 연혁 : 관란서원의 건립연대는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려실기술』에서는 1660년(현종 1)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교남지』에서는 1659년(효종 10)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자인현읍지』(1832)에는 “順治 己亥年에 창건했으며 경자년에 봉안 위판식을 거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순치 기해년이란 1659년(효종 10)이며, 경자년은 1660년(현종 1)이다. 金應祖 [1587~1667]가 쓴 「觀瀾書院奉安文」에 의거하면, 관란서원의 건립연대는 1659년(효종 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려실기술』의 1660년(현종 1)은 위판봉안식을 거행한 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관란서원은 용산 北麓 觀瀾川을 굽어보는 곳에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창건되었다. 이언적을 제향하고 있으며 1715년(숙종 41)과 1743년(영조 19)에 사당을 중수하였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1901년(辛丑)에 觀瀾書堂을 중건하였다. 관란서원 현판은 1923년 尹玄基가 썼다. 1971년 관란서원 내 祭壇碑를 세우고, 1994년에는 현대식 관리를 건립했다. 1996년에는 관란서원 下堂을 개축했다. 2004년 사당을 복원하였

다. 사당의 이름은 이언적이 찬술한 『求仁錄』과 『論語』 「里仁編」에서 차용하여 '安仁祠'라 했다. 매년 重九日(9월 9일)에 향사를 지낸다.

10. 남천서원(南川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용성면 덕천1길 39
- 건립연도 : 1700년(숙종 26)
- 관련인물 : 金應鳴
- 향사 : 양력 3월 3째주 일요일
- 연혁 : 남천서원은 1696년(숙종 22) 자인현 남팔리[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삼성산 아래에 자인현 복현에 공이 있는 김응명, 이광후, 이창후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鄉賢祠[=尙德祠]에서 시작한다. 당시 자인유생 수백 명의 발의로 1699년(숙종 25) 착공하여 1700년(숙종 26) 완공하였다. 『여지도서』 자인현 「壇廟」에 의하면 관아의 남쪽 10리에 있었다고 하며, 자인을 복현하게 하여 어려움에 빠졌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그들의 위패를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에 의해 향현사가 훼손된 후 1922년 자인향교 유생들의 뜻을 모아 1927년 3월 현재의 위치로 옮겨 김응명의 위패를 모시는 남천서당으로 복원하였다. 그리고 2002년 남천서원으로 중건·상량했으며 200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증축하였다. 본래 김응명, 李光後, 李昌後의 위패를 봉안하고 춘추에 奉獻하였으나, 1927년부터 김응명의 위패만 모시고 음력 2월 26일에 봉향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양력 3월 3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11. 용산서원(龍山書院)

- 소재지 : 경산시 용성면 곡란1길 19-15

□ 건립연도 : 1635년(인조 13)

□ 제향인물 : 崔八凱 崔八元

□ 향사일 : 3월 중정

□ 연혁 : 용산서원은 1635년(인조 13) 임진왜란 공신 최팔개, 최팔원을 추모하기 위해 永慕齋를 건립한데서 시작한다. 영모재는 고을의 大姓인 曲江 崔氏[곡강은 현재 흥해]의 墳菴[묘를 지키기 위해 세운 암자]으로, 창건연도는 1635년(인조 13)이다. 「龍山書堂記」에 의하면 용성면의 흥해최씨는 조선시대 樹隱 崔傳의 6세손인 崔順瀆이 성종 조에 진사가 되어 스스로 밀양에서 자인 동쪽 곡관리로 이거해왔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최팔개와 최팔원을 기리는 재실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넓고 허물어지자 문중에서 물력을 모아 옛날 재실 터에 영모재를 세우고 두 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별도로 세웠다. 1903년 영모재를 용산서당으로 바꾸고 사절각을 지었으며, 1904년 강당을 증축하여 사림의 강습공간으로 삼았다. 향산 이만도가 「용산서당기」를 썼으며 벽진이씨 李宗基가 「龍山講堂記」를 썼다. 「龍山書堂景義祠顛末記」에 의하면 1918년 무오년에 종중이 함께 도모해 사우 3칸을 건립, 1963년 계묘년에 사림의 공의로 두 인물을 배향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4년 갑진년에 강당을 증축하고 자문을 구해 사절각을 용산서당 경의사로 바꾸게 되었다. 후손 崔性達의 설명에 의하면 1977년 용산서당 首任으로 있던 郭祥汶씨가 발의하여 1987년에는 서원 향례를 행사하도록 1986년 3월 중정 향례시 유림의 공의로 결의하였다고 한다. 이후 용산서당은 용산서원으로 개칭되었다.

12. 조곡서원(早谷書院)

□ 소재지 : 경산시 남산면 성산로 262

□ 건립연도 : 1794년(정조 18)

□ 관련인물 : 安祐, 安止

- 향사 : 음력 2월 중정
- 연혁 : 조곡서원은 1794년(정조 18)에 경산시 남산면 조곡리 聖岑山 아래에 건립한 서원이다. 지역 유림과 탐진안씨 후손들이 모여 鰲城君 安祐와 臯隱 安止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이듬해 지금의 자리에 헐린 부재로 지금의 강당인 尙敬齋를 재건하였다. 1900년(고종 37)에는 강당 뒤에 忠賢祠를 건립하여 釋菜禮를 행하였다. 1950년에 서원 정문인 嚮道門을 건립하고, 다음해 동재를 건립하면서 서원을 재건하였다. 「조곡서원」의 옛 편액을 걸고 매년 음력 2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면서 서원의 면모를 완비하였다.

13. 구계서원(龜溪書院)

- 소재지 :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민속원
- 건립연도 : 1696년(숙종 22)
- 제향인물 : 禹倬
- 향사 : 매년 10월 말~11월 초
- 연혁 : 구계서원은 역동 우탁의 후손들이 안동부 동쪽 美質里에 廟宇를 세우고 10월 15일 望祭를 행하였던 것이 시원이다. 1694년(숙종 20) 9월 20일 道生書堂 유생들이 묘우 근처에 있던 서당을 묘우 앞으로 옮겨 세워 강당으로 할 것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후 1696년(숙종 22) 11월 초4일에 위패를 봉안하면서 道東書院으로 하였다. 1704년(甲申) 서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물력이 부족하여 10년이 되던 1713년(癸巳)에 서원을 옮기고, 10월 3일 위패를 移安하였다. 묘호를 慕賢祠라 하고, 건물 북쪽의 동재를 日新齋, 남쪽의 서재를 時習齋라 하였다. 강당을 明教堂이라 하고 좌우의 협실을 義方과 敬直이라 하였다. 큰 문을 進德이라 하고 전체를 이룸하여 구계서원이라고 했다. 이미 현풍에 도동서원이 있었기에 서원이 건립된 미질리 구계마을의 지명을 따라서 서원의 이름을 고쳤다.

구계서원 이안문과 상향축문은 金世欽[1649~1721]이 지었으며, 묘우 상량문은 李栽[1657~1730]가 지었다. 1784년(정조 8) 李宇標를 疏首로 구계서원 사액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이미 예안 역동서원과 단양 단암서원이 사액되었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본손과 향내 유림의 공의로 1896년(건양 1) 9월 19일에 강당만 지어 讀易齋라 하였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하게 되어 영남대학교 민속촌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관할 당시에는 강당인 독역재, 정문, 협문 및 모현사 遺址碑 밖에 없었으나, 2000년 11월에 신위를 모신 묘우인 모현사와 내삼문, 동서재인 일신재와 시습재, 대문인 진덕문을 복원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후보

1. 주요 연혁

2017. 1. 20. : 제13회 월례발표회(한중연) 및 《총회》 개최
2017. 4. 7. : 제14회 월례발표회(한중연), “한국의 인문(人文)공간: 서원(書院)”
2017. 7. 21. : 제15회 월례발표회(옥산서원), “옥산서원 스토리텔링”
2017. 10. 27-30 : 한중서원학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호텔 아젤리아)
2018. 4. 27 : 제16회 월례발표회(중국 청도대학교)
2018. 10. 13 : 제17회 월례발표회(중국 니산 성원서원)
2018. 12. 15 : 제18회 월례발표회(한중연) 및 《총회》 개최

2. 활동

■ 제16회 월례발표회(2018. 4. 27, 중국 청도대학교)

- 발표 ①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채광수, 경일대)
발표 ② 조선전기 교육정책과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건립 활동 (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 (김순한, 영남대)

■ 제17회 월례발표회(2018. 10. 13, 중국 니산 성원서원)

- 발표 ①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설립상황과 서원화 과정(정순우, 한중연)
발표 ② 선산 금오서원 건립과 제향인물 선정 논의(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도산서원 교육내용의 공부론(김자운, 공주대)
발표 ④ 18세기 말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채광수, 영남대)
발표 ⑤ 청액일기를 통해서 본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김순한, 영남대)

- 제18회 월례발표회(2018. 1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① 화양구곡도와 우암학파의 도통의식(정은주, 한중연)
 - 발표 ② 18세기 도동서원의 도서간행과 장서관리(김정운, 경북대)

한국서원학회 회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 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12.15.>

-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 제 8 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9 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 제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 : 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

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 :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부정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19조 삭제 <2017.01.20.>

제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15.>

제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 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 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 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1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 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

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01.20.>

제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37조(기금의 구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 3 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 4 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 5 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 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6 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A), 수정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과 인쇄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안 [재심의, 표절심의 등]을 제외하고는 발행일(6월 30일, 12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 8 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개정 2018.12.15.>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

를 청구한다.

제 9 조(지적재산권) 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 10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
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
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
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
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 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
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
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
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 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

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사진 1>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 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 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 4 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 5 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 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 8 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9 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서원학회 5기(2018.3-2020.2) 임원명단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장동표(부산대), 최광만(충남대)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조영화(대경대),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동아대),
김대식(경인교대), 권오영(한중연),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조준호(실학박물관), 채광수(영남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이근호(한국체육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전라제주 김봉곤(전남대)
경상 정진영(안동대)
간 사 : 이신예(한중원), 김순한(영남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등홍파(중국서원, 악록서원), 유재춘(문화사, 강원대),
정우락(국문학, 경북대), 조인철(건축·풍수,
원광디지털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강봉수(윤리교육, 제주대), 이우진(교육사, 공주교대)
편 집 간 사 : 김순한(영남대)

인쇄일 2018년 12월 27일
발행일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화 053-810-3706
팩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인쇄소 삼성정밀인쇄사(053-255-3255)

ISSN 2234-8603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7

December, 2018

Contents

Articles

Publishing and Collecting Books of Dodong Seowon ······	Kim Jeongun	5
The study on Oshio Chusai's teaching in Sesimdong Academy. ·····	Lee Woojin	33
North Korean Research on Confucian Academies in the 1950s and 1960s ······	Vladimir Glomb, Martin Gehlmann	59
The preliminary study about under the vision of Digital Humanities data base development ······	Zhan Beibei	83
Supplement ······		99
Bulletin ······		119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

